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8726.60	↑ 코스닥	1018.68
	(+180.62)		(-15.35)
↓ 금리 (연이자율)	3.717	↓ 환율 (원/달러)	1509.05
	(-0.027)		(-2.05)

metro 경제

USD/KRW
1,511.90
Hana Bank
▲ 0.80 (0.05%)
02

글로벌 일상식 된 K-푸드... 영토 확장전략 공유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본지, 오늘 오후 2시 페럼타워 개최 'K-food, 세계인의 먹거리' 주제 농식품부 유재형, 해수부 박수영 수출 확대 전략·정책 방향성 제시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며 글로벌 식문화의 새로운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은 'K-푸드(K-Food)'.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계인이 매일 즐기는 일상식으로 진화한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지식과 교류의 장이 열린다.

메트로경제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문화를 담아 전 세계 유수의 마켓과 식탁을 사로잡은 국내 대표 식품기업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토 확장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기사 L8면>**

최근 K-푸드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전통적인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중국·일본을 넘어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중남미까지 전 세계 208개국으로 수출길이 넓어졌다. 라면, 소스류, 쌀가공 식품뿐만 아니라 딸기, 포도, 배, 인삼, 한우 등 신선 농축산물까지 품목도 한층 다양해졌다. 특히 지난 1월 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위한 식이지침'을 통해 한국의 김치를 건강식품으로 공식 소개하며 자국민에게 섭취를 권장하는 등 K-푸드의 글로벌 위상은 한 단계 더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잠실 개표소 진입 대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다 한 집회 참가자가 막아서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열리는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은 정부의 정책 방향부터 글로벌 선도 기업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까지 총망라하는 다채로운 강연으로 꾸며진다. 첫 세션에서는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나서 K-푸드의 외연 확장을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을 공개한다. 유재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식산업과장이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박수영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사무관이 '2026 수산식품 수출전략'을 발표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및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기업 세션에서는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대표 식품기업들의 성공 방정식이 베일을 벗는다. 한국 식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화에 성공한 비결과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독창적인 제품 개발 스토리가 중심이 된다. 정찬기 대상 글로벌김치마케팅팀장이 '종가, 식품업계의 하이닉스를 꿈꾸다'를 주제로 전 세계에 김치 열풍을 일으킨 '종가(JONGGA)'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과 비전을 공유한다. 뒤이어 윤명량 풀무원 글로벌마케팅 총괄본부장이 '글로벌 K-Food 트렌드와 지속가능 식품의 미래'를 통해 바른 먹

거리를 넘어 글로벌 지속가능 식품 시장을 선도하는 풀무원의 혁신 DNA를 소개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K-푸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떻게 견인할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전망도 제시된다. 안병익 식신대표가 '식신 AI 데이터로 본 외국인 찾는 K푸드' 발표를 통해 실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외국인 소비자의 취향과 트렌드를 정밀 분석하며, 연운열 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이 'AI와 푸드테크가 만드는 K-푸드 2.0'에 대해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격돌 勞 "차별과 낙인" 使 "생존 사다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변수로 중 하나인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 간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붕괴를 막을 '생존의 사다리'라며 도입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가 적용된 것은 최저임금법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뿐이다. 이후에는 업종별 기준 마련의 모호성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30년 넘게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있었다.

최임위, 전원회의서 심의 착수 경총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1분기 매출 356조... 경영난 심각" 노동계 "차별·불평등 심화시켜 업종별 적용, 지금 당장 폐지돼야"

사용자위문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올해 1분기 말 매출 잔액이 약 35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현장의 심각한 경영난을 짚었다. 류 전무는 "업종별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하나의 기준만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져올 부작용과 불평등 심화를 경고하며 전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근로자위문간사인 류기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같은 곳에 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려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 장애인 수습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고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면서 "공약위원들 또한 이러한 반노동적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가려지면 최임위는 곧바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조율 아리는 본계임에 들어가게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

개인회생·파산 1년 새 최대... 빚투족 상환 한계 '비상'

법원, 4월 개인파산 접수 3625건 개인회생 1.5만건, 2년여 만에 최대 생계형 채무 증가, 투자실패 원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식 시장 상승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까지 겹쳐 개인회생·파산 신청 건수가 1년 새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에 주식 투자 실패까지 더해져서다. 금융권에서는 가계 부채의 질 악화와 잠재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지난 4월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3625건,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만5117건

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지난 2024년 2월 1만169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 동안 일부 채무를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할 때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다.

최근 개인회생 증가 배경으로는 경기 둔화에 따른 생계형 채무 증가와 함께 주식·가상자산 투자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증시 상승 흐름 속에서 뒤늦게 투자에 뛰어들던 개인투자자들이

대출이나 신용융자를 활용해 투자 규모를 키웠다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식·코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다. 고정적인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라도 회생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빚투 열기는 금융권 대출 증가 흐름에서도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5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8조1000억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2조6000억원 늘었다. 특

히 상호금융권 대출 증가 폭이 11조원으로 가장 컸고, 보험업권은 1조원, 여신전문금융사는 6000억원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투자 목적의 자금 수요가 확대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자산 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 원금 손실뿐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동시에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 주식 투자자는 신용융자를 활용할 경우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위험에 노출된다.

<2면에 계속>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 ▲ 김 총리 "국민 참정권과 함께 민주질서도 보호해야... 시위 불법행위 일벌백계" **<사진 뉴시스>**
- ▲ 대통령기록관, '세월호 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 ▲ 서울시선관위, '투표지 부족' 다음 날 새벽에야 첫 회의
- ▲ '서해 피격 은폐' 서훈 2심도 무죄... '허위야나'

- ▲ 서울 물가 2% 초반대 깨졌다... 상품·서비스 동반 상승세
- ▲ 오세훈 "재선거 주장 소모적"... 장동혁 공개 비판

1500원대 강달러 여전... “원화, 3분기부터 서서히 오를 것”

美-이란, 호르무즈 해협 등 인식차 당분간 달러 지지력 유지 가능성 종전 구체화시 1400원대 중반 전망



16일 오후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511.1원)보다 0.5원 오른 1511.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최대 요인이었던 '중동사태'가 종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원화는 달러당 1500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1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11.60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직전일 주간 종가와 비교해 0.5원 올랐다.

◆ 한국시장 떠나는 외국인... 수출기업 달러선호 뚜렷

'중동사태' 종료에도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내리지 않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전 수요가 원화값을 끌어내리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318억3000만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갔다. 기존 최대치인 올해 3월의 297억8000만달러보다 20억 달러 이상 많다. 이는 국내 기업의 경영 악화 전망보다는 차익 실현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기인했지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수요는 원화값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전 수요에 따른 원화의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동사태'의 종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사들이기보다는 팔아치우고 있어서다. 특히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보유 비중도 1년 전과 비교해 8%포인트(p) 높은 40%에 달한다.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강달러' 양상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들이 환전을 미루는 것 또한 원화값이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다.

각 사 공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 달러예금 잔액은 총 543억 7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달러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했다가 만기 때 원화로 돌려받는 상품으로, 달러예금 규모는 기업의 달러 선호와 직결된다.

기업들의 달러 선호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는 주요 수출기업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지난 1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수출기업과 외환시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유예 자금의 적극적인 환전을 요청했다.

◆ '중동사태' 잔불 남아

전문가들은 '중동사태'의 잔불이 남아 있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달러당 1500원 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양호한 수출 경기와 비교했을 때 원

화가 과도하게 평가절하 됐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하반기부터는 환율이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종전 기대에 따른 환율 하락 압력에도) 달러의 실수요와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환율 하단을 지지하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인식차도 여전한 만큼, 달러의 지지력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원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는 중동사태 동안 다른 통화와 비교해 더 큰 변동성을 보였다"라면서 "종전이 구체화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사상 최대 수준인 무역수지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직접 요인으로 기능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의 유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수출 경기가 매우 양호한 것과 비교해 원화는 지나치게 힘을 못쓰고 있고, 하반기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원화 절하 압력을 완화시킬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i231@metroseoul.co.kr



metro

>> 1면 '개인회생·파산...서 계속

상승장 '포모 심리' 자극 "무리한 투자 경계해야"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데, 급락장에서 손실이 확대되면 계좌 자산이 사실상 사라지는 '강통계좌'로 이어질 수 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도 가계 재무 건전성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업권 연체율은 6.7%로 전 분기 말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의 상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 실패 채무까지 더해질 경우 금융권 부실로 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무리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심리가 투자 판단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회생·파산 관련 전문가는 "주식 상승 관련 뉴스가 이어질수록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며 "마이네스통장이나 신용융자 잔액 증가 흐름은 여전히 시장에 포모 심리가 남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채무 상환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투자에 나서는 행위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회생 절차를 앞두고 새롭게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경우 법원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더라도 개인의 소득 증가와 현금 흐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계 부채 부담은 줄어 들지 않는다"며 "자산 가격 상승기에 나타나는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가 향후 잠재 부실로 전환될 가능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美, 이란 재건기금 조성 검토... 韓 기업 수혜 가능성

3000억 달러 규모 조성안 논의 정부가 아닌 참여기업 투자방식

미국은 대 이란 전쟁이 종식된다는 전제하에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자금으로 꾸리는데, 한 외신보도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언급했다.

실제 관련 펀드가 조성될 경우, 이는 결국 백악관의 이란 정부에 대한 전쟁 배

상금 지급이 아니냐는 전 세계의 해석·평가를 낳을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현지시간 15일치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진행된 미-이란 간 종전협상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및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안이 논의됐다. 신문은 미국의 한 고위 관료를 인용했다.

이 신문은 재건기금이 양측 간 양해각서(MOU)의 일부라고 보도했다. 단, M

OU에 적시된 합의가 실제 이행돼 펀드 조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각국 정부가 아닌, 이란 에너지산업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기금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한 관계자는 신문에 "유럽, 아시아, 한국, 일본에 더해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 제재가 해제된다면 기금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같은 맥락의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펀드 조성안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 역시 MOU 내용을 전하고,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에 대해 거론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복리 이자 목돈 마련

신속한 비대면 대출

공제금 압류 금지

홍보대사 소유미

홍보대사 탁재훈

KBIZ 중소기업중앙회 가입문의 **1666-9988**

* 중소기업중앙회 심의필 제26-025호(2026.03.06 ~ 2027.03.01) *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보험권 대출 9000억 증가...해약 늘며 가계 '현금창구' 전략

4월 감소서 한 달 만에 증가세
해약환급금 17조8400억 29.7% ↑
신계약 건수·금액 등 동반 감소
당국, 제2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생활·투자수요 겹치며 현금화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가계대출 이미지.

가계부채비상관리 체계가 가동된 가운데 보험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시 활황에 따른 투자자금 수요와 생활자금 수요가 겹친 가운데 보험 해약까지 늘면서 보험이 장기 보장자산이 아닌 가계의 단기 현금창구로 활용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했다. 보험권 가계대출은 4월 4000억원 감소에서 5월 9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다만 보험권 가계대출 9000억원 증가분을 모두 보험계약대출 증가로 볼 수는 없다. 보험권 가계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보유

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활용해 왔다.

문제는 보험권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시점에 금융당국의 관리 압박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자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열기로 했다. 은행권에는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신용대출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 등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

하도록 했다.

가계대출 관리는 은행권에만 머물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흐름도 함께 살피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낮춰 운영하고 있다. 빚투와 미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 수요까지 함께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권 대출 반등은 보험 해약 증가와 별개의 통계지만, 가계의 현금 수요와 보험계약 유지 부담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

표라는 점에서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돈을 빌릴 여력이 있는 가입자는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지만, 보험료 납입 부담이 커지거나 상환 여력이 부족한 가입자는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은 크게 늘고 있다. 22개 생보사의 올해 1분기 해약환급금은 17조8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3조7551억원보다 2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보험 신계약 건수는 309만 429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줄었다. 신계약 금액도 51조9009억원에서 46조 2118억원으로 11.0% 감소했다.

보험사 입장에서 해약 증가, 신계약 감소, 대출 관리 강화가 동시에 부담이다. 해약 증가는 계약 유지율과 미래이익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계약 감소는 새 수익원 확보를 어렵게 한다. 여기에 보험계약대출 관리까지 강화되면 고객 유지와 이자수익 방어 여지도 줄어든다.

소비자 부담도 작지 않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을 유지한 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해약은 보장 공백으로 이어진다.

특히 고령층이나 유병력자는 보험을 해지한 뒤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기 현금 확보를 위해 보험을 깨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의료비와 보장 공백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권 대출 증가를 단순한 빚투 수요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투자 목적 자금과 생활자금 수요가 섞여 있는 만큼 일률적인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다만 해약과 대출이 동시에 늘어나는 흐름은 보험사의 성장성뿐 아니라 소비자의 보장 유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투자 목적 자금과 생활자금 수요가 섞여 있어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다만 해약과 대출이 동시에 늘어나는 흐름은 보험사의 성장성뿐 아니라 소비자의 보장 유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471@metroseoul.co.kr



metro

삼성·SK, HBM4E 경쟁 본격화... 승부처는 엔비디아 인증·수율

삼성, 12단 샘플 출하 공식화
SK하이닉스, 고객사 공급 앞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을 놓고 정면 승부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E 샘플 출하를 공식화하며 기술 선점에 나선 가운데, SK하이닉스도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HBM4E 샘플 공급을 앞두면서 양사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인증과 안정적인 수율 확보가 최종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HBM4E 개발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

를 확보하고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샘플 출하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HBM4E 샘플 출하 시점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7월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콘퍼런스콜에서 "내부적으로는 하반기 샘플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들어 이보다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HBM 시장의 무게 중심이 HBM4E와 고단 적층 제품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HBM4E 12단 샘플 출하를 공식화했다.

삼성전자의 HBM4E는 설계·공정 최적화를 통해 핀당 동작 속도를 14Gbps에서

최대 16Gbps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전자인 HBM4 대비 20% 이상 향상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개를 단순한 신제품 발표를 넘어 차세대 HBM 시장의 표준 주도권을 겨냥한 기술력 과시로 해석하고 있다.

국내 메모리 업체들은 HBM5 사양을 제시하는 한편, 선단 패키징 기술 경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2일 대만에서 열린 '컴퓨터스 타이베이 2026'에 나란히 참가해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와 HBM 성과를 적극 알렸다. 다만 이들 기술의 최종 관문은 엔비디아의 인증 체계를 통과하는 데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엄격한 검증 기준을 통해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을 계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잇단 회동이 이뤄지면서 HBM 주도권을 둘러싼 양사의 전략적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HBM 시장 주도권이 여전히 SK하이닉스에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8%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각각 21%를 기록했다. HBM4E 초기 샘플 출하 경쟁에서는 삼성전자가 한발 앞섰지만, SK하이닉스

역시 12단 48GB HBM4E 출시 계획과 함께 향후 5년 내 생산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양사의 주도권 다툼도 팽팽하게 전개되는 분위기다.

특히 HBM4E 샘플 출하 여부와 실제 양산 수율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향후 수율 확보가 시장 관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선점한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율 개선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운드리 부문 역시 TSMC와 비교되는 수율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고객사 확대와 실질적인 수주 증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함께하는 연호
도약하는 포항

혼자하면 '힘든'육아 함께하면 '든든'육아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포항 ♥

포항시
포항시

함께하면 '든든'육아 성공비법

결혼지원

- ① 미혼남녀 커플매칭
- ②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 ③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출산지원

- ① 난임부부 시술비
- ② 기형아 검사비
- ③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돌봄지원

- ① 24시간 365어린이집
- ② 공동육아·놀이터
- ③ 다함께돌봄센터
- ④ 직장맘&이른아이 SOS

양육지원

- ① 출생 축하금 / 첫만남이용권
- ② 부모급여, 아동수당
- ③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 ④ 다자녀가정 특별양육비

주거지원

- ① 청년 신혼부부 월세
- ②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 ③ 포항형 친원주택

일·가정 양립지원

- ① 영미장순산 / 우리동네 어버이교실
- ② 소상공인 아이보통 사업
- ③ 다자녀 가족 영화관, 행복운동회

살아남아도 계속 되는 경쟁... “이젠 수익화서 갈린다”

세계 경제를 제패(制覇)하겠다는 중국의 호언장담이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세계의 공장’ 수준이었던 중국은 이제 가성비로 무기로 전기차에서부터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메트로경제신문>은 해외 산업 분석 전문가인 ‘시드윈’과 공동으로 약 10회에 걸쳐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를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2 전기차 기업의 명과 암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 기업이라고 해서 다 성공한 건 아니다. 화려한 발표와 함께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도 차 한 대 제대로 못 만들고 사라진 기업이 있는가 하면 수년째 적자를 내면서도 버티고 버티 끝내 흑자를 낸 기업도 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지난 10년은 이 두 이야기가 교차하며 쓴 역사다. 정부 보조금을 계기로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은 한때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공급과잉과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승자와 패자는 빠르게 갈렸다. 결국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수많은 기업의 진입과 퇴출, 그리고 살아남은 기업들의 흑자 전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 수백 개 기업 몰렸지만...공급과잉에 구조조정 본격화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보조금을 풀기 시작하자 ‘전기차 골드러시’가 시작됐다. 국유기업도, 부동산 재벌도, 인터넷 스타트업도 모두 달려들었다. 2019년 무렵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기업이 수백 개에 달했다.

업체 수가 급증하면서 전기차 시장은 공급과잉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5년 3월 중국 EV100 포럼에서 산업정보화부 후보 전 차관은 “중국의 전기차 생산 능력이 이미 2000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4년 중국 내 판매량이 1290만 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생산설비는 수요보다 약 50% 많은 셈이다.

과잉 생산 능력은 완성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배터리 생산 능력도 실제 수요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이 실제 수요의 4배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도 수차례 제기됐다. 생산 능력이 늘어날수록 가격 경쟁은 심해지고 수익성은 악화되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16개 전기차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퇴출됐고 약 4000개(전체의 10%) 달리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78개 완성차 기업 가운데 월 5000대 미만을 생산하는 업체가 31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때 중국 전기차 시장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시장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규모와 기술력,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만 살아남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 전기차 신형 브랜드 가운데 흑자를 낸 첫 번째 기업은 리상이었고 링파오가 그 뒤를 이었다. 전기차 스타트업의

중국 전기차 신형브랜드 판매량과 전략

	리상	링파오	샤오핑	니오	지커
2025년 판매	약 50만대	59만6,555대	42만9,445대	32만6,000대	22만4,133대
수익성	3년 연속 흑자 GAAP 순이익 11억 위안	2025년 첫 연간 흑자 순이익 5.4억 위안 (단독 기준)	4분기 첫 분기 흑자 3.8억 위안 연간 적자 축소 중	4분기 첫 분기 흑자 2.83억 위안 연간 149억 위안 적자	분기 적자 축소 중 연간 합산 미발표
핵심 전략	EREV 전략 가족 SUV 집중	저가 대중화 부품 자체 개발 65%	자율주행 기술 특화 폭스바겐 협력	배터리 교환소 생태계 3815곳 보유	지리그룹 프리미엄 포지션

중국 전기차 파산기업과 실패요인

기업	파산 사업정지	핵심요인
헝다자동차	2024년 파산	부동산 부채 전이, 수십개 차종 동시 추진
바이톤	2021년 파산	차세대 미생산, 양산기술 없이 투자금 소진
아이웨이스	2023년 사업정지	공급망 비용 감당 실패



리상 'i6'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팔수룩 손해’ 구조를 벗어나는 데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 리상·링파오 생존 공식...흑자 문턱 넘어 전기차 스타트업

리상은 2025년 약 1123억 위안(약 25조 1642억원)의 매출과 11억 위안(약 246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2024년 80억 위안(약 1조 7926억원)이던 순이익이 크게 줄었지만 중국 전기차 신형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 中 정부 전기차 보조금에 업체 수 급증 ‘공급과잉’ ‘팔수룩 손해’ 구조 벗어나는 데 10년 가까이 걸려

리상, 3년 연속 흑자 ‘유일’... EREV로 문제 우회
링파오, 핵심부품 직접 설계·생산으로 원가 낮춰
샤오핑·니오, 분기 흑자로 수익성 개선 가능성
연간 40만~50만대 판매해야 수익 구조 본격화
제품 개발, 생산, 공급망, 판매망 동시 관리해야

리상의 전략은 명확했다. 순수 전기차 대신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배터리가 떨어지면 내연기관이 발전기 역할을 하는 방식)에 집중하며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우회했다. 장거리 이동 수요가 많은 가족 단위 소비자를 겨냥해 중대형 SUV 중심의 라인업을 구축했고 모델 수를 제한해 생산 효율을 높였다.

링파오는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두 번째 흑자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판매량은 59만6555대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순이익은 5억4000만 위안(약 1210억원)을 기록했다. 8만~15만 위안(약 1792만~3360만원) 가격대에 집중하면서 핵심 부품의 65%를 직접 설계·생산해 원가를 낮췄다. 스텔란티

스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 판매망을 확보한 것도 성장에 힘을 보탰다. 2025년 해외 수출은 6만7052대로 중국 신형 전기차 브랜드 가운데 가장 많았다.

리상과 링파오가 연간 흑자에 먼저 도달했다면 샤오핑과 니오는 분기 흑자를 통해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샤오핑은 아직 연간 기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2025년 4분기 순이익 3억 8000만 위안(약 851억원)을 기록하며 창업 이후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매 이후 수익 구조로 요약된다. 업계에서는 연간 40만~5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확보해야 본격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리상과 링파오, 샤오핑은 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섰다.

부품 내재화 역시 중요한 요소다. 배터리와 모터, 전장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직접 개발할수록 원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가격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원가를 통제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시장에서 사라진 기업들은 공통된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은 막대한 자금을 앞세워 전기차 사업에 진출했지만 실제 양산에 성공한 모델은 형치5 한종뿐이었다. 결국 모기업 부채 문제가 전기차 사업으로 번지며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BMW와 닛산 출신 인재들이 창업한 바이톤 역시 화려한 콘셉트카로 주목받았지만 양산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아이웨이스도 유럽 시장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공급망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양산 능력보다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에 먼저 집중했다는 점이다. 전기차 산업은 기술기업의 성장 전략과 제조업의 생산 역량을 동시에 요구한다. 제품 개발과 생산, 공급망 관리, 판매망 구축 가운데 하나라도 흔들리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생존 기업들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가격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6년 1분기 중국 자동차 산업 전체 영업이익률은 2.9%까지 떨어졌다. BYD조차 2025년 순이익이 전년보다 19%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리상 역시 2024년 80억 위안(약 1조 7895억원)이던 순이익이 2025년 11억 위안(약 2461억원)으로 줄었다. 판매량 확대만으로는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 승자와 패자 가른 차이...가격 전쟁 속 생존 경쟁 계속

흑자를 낸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판매 규모, 부품 내재화, 차량 판

결국 중국 전기차 산업은 생존 경쟁을 넘어 수익성 경쟁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년이 누가 살아남느냐를 가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관희 기자

결국 중국 전기차 산업은 생존 경쟁을 넘어 수익성 경쟁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년이 누가 살아남느냐를 가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관희 기자

결국 중국 전기차 산업은 생존 경쟁을 넘어 수익성 경쟁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년이 누가 살아남느냐를 가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관희 기자

결국 중국 전기차 산업은 생존 경쟁을 넘어 수익성 경쟁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년이 누가 살아남느냐를 가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관희 기자

결국 중국 전기차 산업은 생존 경쟁을 넘어 수익성 경쟁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년이 누가 살아남느냐를 가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관희 기자

결국 중국 전기차 산업은 생존 경쟁을 넘어 수익성 경쟁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년이 누가 살아남느냐를 가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관희 기자

결국 중국 전기차 산업은 생존 경쟁을 넘어 수익성 경쟁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년이 누가 살아남느냐를 가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관희 기자

결국 중국 전기차 산업은 생존 경쟁을 넘어 수익성 경쟁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년이 누가 살아남느냐를 가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관희 기자

결국 중국 전기차 산업은 생존 경쟁을 넘어 수익성 경쟁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년이 누가 살아남느냐를 가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관희 기자

결국 중국 전기차 산업은 생존 경쟁을 넘어 수익성 경쟁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년이 누가 살아남느냐를 가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관희 기자



샤오핑 P7+

/샤오핑





KT가 광장을 바꿉니다

5천만 국민이 하나되어 응원할
커다란 무대로

모두의 뜨거운 진심이
지구 반대편 태극전사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6월,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을 26년간 공식 후원해 온
KT가 태극전사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응원을

AX Platform Company kt

힘찬 응원하고 짝찬 혜택 받으세요(6.5~7.19)

- KT 매장 방문하면, 한정판 굿즈 선착순 증정
- KT 상품 가입하면, 국대급 경품 추첨 제공



여야, 45일간 선관위 국정조사… 위원장은 국힘이 맡는다

(국조특위)

내일 국회 본회의서 계획서 처리
중앙선관위·각급 지역 선관위 대상
민주 9명·국힘 7명·비교섭 2명 구성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으나 이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운영수석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지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했다.

천 원내수석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가칭)로 정했고,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준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선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또 여러 지자체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야는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

한 없이 충분히 관계 기관에 대해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국정조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지는 측면에서 45일로 정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한다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양당 원내수석은 이번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

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천 수석은 “비교섭단체 두 분이 배정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권한이라 의장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 시위와 관련해 범죄 행위가 일어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국민 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 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민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신속한 검경합동수사 본부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청년 대표를 포함해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국민이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장관은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데 유감을 표하며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합법적인 집회 참여자와 체육 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李 “재외국민도 주권자… 투표권 문제 신속히 해결”

이탈리아 동포 만나 오찬 간담회
“재외국민 보호·영사 지원 행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교민들을 만나 “대한민국 국민이자 주권자들이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권을 행사 못하는 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재외국민 투표 문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국민의 의사가 모국의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며 재외국민 역시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지원에 있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어서도 더욱 촘촘하게 행하겠다”며 지난 12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 운전면허증, 체류 자격 허가 등 재외동포의 민원 사항을 전달했다

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한국 인인가’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부담스러운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딜 가나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하고 있다”며 “여러분(교민)들의 노력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격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처럼 급변하는 사회도 흔치 않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짧은 시간에 경제적 성취는 물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지 않았나”라며 “다음 세대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품격이자 우리 외교의 가장 든든한 뿌리”라며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입양 동포 가족 찾기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입양 동포 여러

분과 그 자녀들이 모국과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서 쉽게 다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탈리아를 좋아하는지 이번에 와서 알게 됐다”며 “과거가 박물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양국은 우주항공, 차세대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같은 미래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문화, 인적 교류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협력을 대폭 확대해 가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신뢰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로, 그 신뢰는 동포 여러분이 쌓아온 것”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서예진 기자

산업부 통상 네트워크 확대 美 301조 대응 논의

정부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제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한-몽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모로코 CEPA 등 진행 중인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몽골은 공급망 협력과 신형시장 진출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점을 고려해 올해 6월 협상을 재개하고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협상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방안을 함께 점검했다.

모로코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CEPA 추진방안을 관계 부처와 모색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의 진행 경과, 미측 발표내용, 관련 대미 협의 경과 등을 설명하고 관련 후속 절차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없이 수행해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존 한미 관세 협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李 대통령, G7서 개발협력 해법 제안

“공여·수원국 간 새 파트너십 모색”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방(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현안 대응과 대유럽 외교 확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5~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비앙에 도착해

마크롱 대통령 및 초청국 정상들과의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오후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을 주제로 한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의 첫 세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AI) 문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정상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의의 첫 세션에서 참여국들과 함께 최근 국제 개발원조가 축소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원국들의 개발수

요는 여전히 확대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의 공적재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G7 등 공여국과 수원국 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수원국들이 공적 재원을 활용해 자국 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자국의 경제자립을 유도해 나갈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노력도 소개했다.

또한 각국의 기술 격차가 다시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및 글로벌 AI 허브 등 우리 정부의 AI 관련 비전도 공유했다.

정부는 이번 이 대통령의 G7 참석을 계기로 대(對)유럽 외교를 본격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연속 초청을 통해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한편 이번 G7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정상 간 만남이 된다.

이번 G7에선 중동 정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가시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 다. /서예진 기자



우리가 **원**하던 오늘

오늘을 더 맛있게

은행·증권, 두마리 토끼 잡았다

4대 금융지주, 역대급 실적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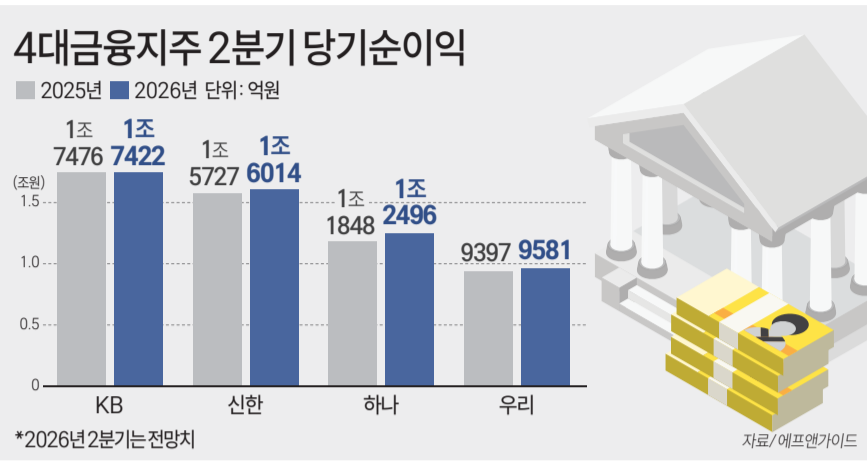
2분기 당기순익 5.5조, 1.8% 상승
상반기 기준 10.9조, 작년 뛰어넘어
원화대출 성장... 안정적 이자이익
'증시 호조' 위탁매매 등 수익 확대

올 상반기 국내 주요 금융지주가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 2분기 당기순이익은 5조 55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5조 4494억원)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4대 금융의 순이익은 10조 9153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한다.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던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10조 3254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B금융은 2분기 순이익이 1조 742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7476억원) 대비 0.3% 하락한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신한금융은 같은 기간 1조 5772억원에서 1조 6014억원으로 9.2%, 하나금융은 1조 1848억원에서 1조 2496억원으로 5.5%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금융도 9581억원으로 1년전(9397억원)과 비교해 2.0% 증가가 예상된다.

4대 금융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동시에 늘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원화대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이자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데다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순이자마진(NIM) 방어에 성공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증시 호조에 따른 증권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 확대와 자산관리(WM)·투자은행(IB) 부문의 실적 개선이 더해지며 비이자이익도 증가했다.

금융지주별로는 은행 부문의 견조한 실적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원화대출이 증가하며 이자 수익 기반이 확대됐고, 증권카드·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권 계열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트레이딩

관련 수익도 증가해 비이자이익 확대에 기여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하반기에도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전매승 LS증권 연구원은 "0.25%포인트(p) 금리인상에 따른 주요 은행의 최초 1년간 이론적인 이자이익의 증가 폭은 평균 1000억원 수준이며 NIM은 0.025%p 안팎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자이익 증가 영향은 최초 6개월 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금융지주 실적은 양호할 전망이다"이라며 "비이자이익은 이익 창출력이 높은 증권사를 보유한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

“카드사, 종합 금융플랫폼 전환 지원”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 취임식
“스테이블코인 활용 제도적 지원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 선도할 것”



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리스·할부금융사가 공유경제 확산과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렌탈 한도 규제의 합리적 완화와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리스·할부금융사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편의 증진과 기업 성장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철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이 취임식에서 신성장 기반 마련과 규제 완화를 위해 합을 약속했다.

이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업계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여신금융업권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카드업권 대상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은 “카드사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포용 금융을 확대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지급결제 인프라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빅테크 등 간편결제사와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스·할부 금융업권에게는 신속한 규

신기술금융업권에게는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투자 확대를 통해 신기술금융업의 대형화 및 투자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신기술금융업의 대형화 및 투자 역량 제고를 위해 신기술 조합의 투자 목적회사 설립, 글로벌펀드 결성 운용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기술금융업의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돼 혁신기업 성장에 더욱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동철 전 KB금융지주부회장을 제14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회장 임기는 3년이며, 이날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취임식은 전임 여신금융협회장 때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

/안선진 기자 wotjs4187@

중소형 건설사 잇단 폐업... 대형사 '기지개'

건설경기, 체급 따라 '양극화'
한계기업 44%, 그중 중소기업 86%
대형사, 이익률 개선 등 바닥 지나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별로는 체급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는 분위기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폐업이 급증한 가운데 재무 건전성도 악화됐다.

1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영업이익이 1 미만 한계기업 비중은 44.2%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중이 86%를 차지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체 폐업은 10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늘었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착

공 감소로 공사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자재가 상승분을 단기에 반영하기 위한 협상력마저 열외인 소형 건설사는 운전자본 고갈과 금융 접근성 부재가 겹쳐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시공능력평가 20~100위 중견 건설사 중 분기별 공사를 하는 27개 기업의 2025년 9월 말 기준 미청구 공사비와 공사 미수금 규모는 8조 1000억원 안팎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은 이익률도 개선되는 등 바닥은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책임준공과 미분양, 시행사 사업성 악화에 따른 잔존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건설안전과 규제 비용도 확대되는 추세다.

건설경기 침체는 아직 진행형이다. 건설투자 기준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역성장을 지속 중이다.

특히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함께 PF 부실, 수요 위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단순한 경기순환적 침체를 넘어 수익성, 유동성, 수주 기반이 함께 악화되는 구조적 압박에 직면했다.

박 실장은 “높은 공사비는 기존 수주 현장의 원가율을 끌어 올리는 동시에 고금리는 PF와 운전자금의 금융비용을 높이며, 고환율은 수입 자재·장비 및 해외 프로젝트의 환차손 위험을 확대시킨다”며 “세 요인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 물량이 일부 회복되더라도 기업의 체감 경기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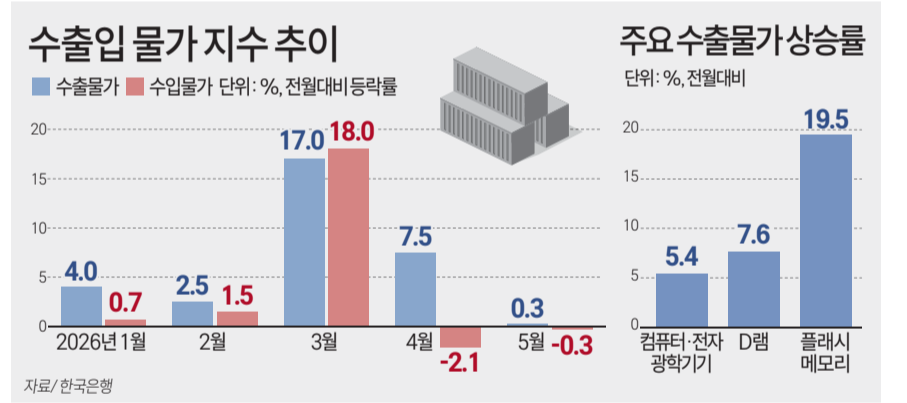
그는 또 “건설업체는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위기 속 양극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재무적 체력이 빠르게 소진중”이라며 “건설기업 규모별·업종별 위기 양상이 상이한 만큼 일률적 지원보다 맞춤형 처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성화 전략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었다.

특히 NH농협은행과 런던금융특구는 런던지점을 기반으로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 금융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인 런던과의 협력은 농협은행의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런던지점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 및 금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반도체 가격 상승... 수출물가 전년비 47% ↑

한은, 5월 수출입물가·무역지수
수입물가는 전년 대비 25% 하락

반도체 가격 상승과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맞물려 지난달 수출물가가 전월보다 상승했다. 반면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한 달 만에 다시 내렸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출물가지수는 원화 기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6.9% 올랐다.

수출물가 상승은 원·달러 환율과 반도체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4월 1487.39원에서 5월 1490.11원으로 0.2% 올랐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와 1차 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농림수산물도 1.8% 올랐다.

특히 반도체 관련 수출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5.4%, 전년 동월 대비 104.0% 상승했다. 세부 품목별로는 D램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7.6%, 플래시 메모리가 19.5%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D램이 259.7%, 플래시메모리가 223.0% 급등했다.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하락했다. 5월 수

입물가지수는 원화 기준 전월 대비 0.3% 내렸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8% 상승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광산품과 석탄및석유제품 가격이 내린 영향이다.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4월 배럴당 105.70달러에서 5월 103.15달러로 2.4% 하락했다.

용도별로는 원재료가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0% 하락했다. 중간재는 석탄및석유제품이 내렸지만 1차 금속제품 등이 올라 보합을 기록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3% 상승했다.

무역물량도 늘었다. 5월 수출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1차 금속제품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4.7% 상승했다. 수출금액지수는 56.8% 올랐다. 수입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기계및장비 등이 늘어 5.2% 상승했고, 수입금액지수는 21.3% 올랐다.

교역조건도 개선됐다. 5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전년 동월 대비 18.7%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도 4.8% 올랐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뜻하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과 수출물량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전년 동월 대비 36.1% 상승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NH농협은행, 영국 금융시장 협력 확대

런던금융특구 시장과 사업 논의

NH농협은행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수전 랭글리(Susan Langley) 런던금융특구(City of London) 시장과 콜린 크록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를 만나 영국 금융시장 협력 확대 및 글로벌 사업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영국 금융시장 동향 및 한·영 금융기관 간 협력 확대 ▲런던금융특구와의 영국·한국 공동투자 협력 ▲디지털 자산 및 토큰화 도입 현황과 디지털 금융산업 발전 방향 ▲에이전티브 AI 도입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개점한 농협은행 런던지점의 사업성과 및 활

한화솔루션, 美 태양광 모듈 양산... 신재생에너지 사업 탄력

한화큐셀, 내달 미국산 모듈 생산
탠덤 셀 등 차세대 기술투자 속도
하반기 매출·수익성 개선 기대감



미국 조지아주 카터빌에 위치한 한화큐셀 공장 전경.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이 미국 태양광 공급망 확대를 앞세워 신재생에너지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현지 생산 기반을 넓혀 북미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차세대 태양전지 투자도 병행하며 수익성 개선과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큐셀부문(한화큐셀)은 다음 달부터 미국 조지아주 카터빌 공장에서 생산한 셀을 적용한 미국산 모듈을 본격 양산한다. 카터빌 공장은 잉곳·웨이퍼·셀 각각 3.3GW, 모듈 3.5GW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기존 달튼 공장(모듈 5.1GW)을 더하면 한화큐셀의 미국내 생산능력은 잉곳·웨이퍼·셀 각각

3.3GW, 모듈 8.6GW로 확대된다.

미국 태양광 시장은 그동안 모듈 생산 능력에 비해 셀 생산 기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화솔루션은 카터빌 공장을 통해 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생산 체계를 미국 내에 완성하며 현지 공급망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중국산 제품과 동남아시아

아 우회 물량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강화도 우호적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중국 공급망과 현지 생산 능력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미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한 한화솔루션의 경쟁력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셀 공급이 늘면서 판매량이 확대되고, 이는 북미 사업 매출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EPC 매출 확대와 개발자산 매각 등도 실적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한화솔루션의 올해 영업이익을 7496억원으로 추정하며 흑자 전환을 점쳤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파일럿 라인업 업그레이드와 탠덤 양산라인 구축, 탑콘(TOPCon)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투자의 핵심인 탠덤 셀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층을 쌓아발전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태양전지다.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고효율 태양광 시장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특히 발전 효율과 경량화가 모두 중요한 우주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기술 발전과 맞물려 태양광 수요처도 그동안 집중됐던 지상 발전소와 주택·상업용 시장을 넘어 우주 인프라로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페이스X 등이 추진하는 우주 기반 AI 인프라 구상이 실제 양산 단계에 이르면 태양광 셀·패널 수요가 지금과는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 내 생산 기반과 비중국 공급망, 대규모 셀 생산능력을 동시에 갖춘 한화큐셀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터빌 공장 가동으로 미국 태양광 공급망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고 탠덤 셀 개발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미국 사업 수익성 개선, 중장기적으로는 고효율 태양광 시장 대응력이 한화솔루션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토요타코리아, ‘라브4’ 공개... 멀티 패스웨이 전략 본격화

친환경·디지털 기반 韓 소비자 공략
올해 말 순수 전기차 모델 공개 예정



코야마 마나부 한국토요타자동차 사장(왼쪽 두번째) 등 토요타 임원진이 16일 인천 영종도 하얏트리조트 인천 파라디이스시티에서 열린 토요타 ‘올 뉴 라브4’ 출시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토요타코리아가 글로벌 인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올 뉴 RAV4(라브4)’의 친환경·디지털 기술 강화를 앞세워 국내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특히 토요타코리아는 전기차의 성능을 품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연비 효율을 높인 하이브리드(HEV)를 동시에 선보이며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멀티 패스웨이’ 전략을 본격화했다.

토요타코리아는 16일 인천 중구 하얏트리조트 파라디이스시티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라브4를 공개했다. 라브4는 PHEV 2개 트림과 HEV 2개 트림 등 총 4개 모델로 구성된다.

토요타코리아는 전동화 기술의 핵심 경쟁력으로 실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PHEV 시스템은 2.5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신규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고효율 e-Axle을 결합해 시스템 총 출력 329마력(PS), 최대 토크 23.8kg·

m을 발휘한다.

특히 에너지 밀도를 높인 22.68kWh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전기(EV) 모드만으로 최대 77km 주행이 가능해 일상적인 출퇴근 구간을 EV모드로 이용할 수 있다. 장거리 이동 시에는 내연기관을 활용해 충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HEV 모델도 성능과 연비를 모두 개선했다. HEV 리미티드 트림은 시스템 총출력 239마력과 복합연비 15.6km/l, HEV XLE 트림은 230마력과 19.0km/l의

복합연비를 구현했다.

토요타코리아는 이러한 전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순수 전기차(BEV)뿐 아니라 HEV, PHEV,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병행하는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대한 토요타코리아 부사장은 “전기차에 관심은 있지만 충전 인프라나 주행거리 불안으로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PHEV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요타코리아는 올해 말 새로운 순수 전기차 모델도 국내에 선보일 계획

이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대폭 강화했다. 토요타코리아는 LG유플러스와 협업해 신규 커넥티드 서비스 ‘토요타 커넥트’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원격 시동, 공조 제어, 차량 상태 확인, 긴급 호출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드라마와 영화, 음악 구독 서비스 에센셜을 제공하며 네이버 클로바 기반 AI 음성인식을 적용해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과 공조장치 제어 등 다양한 차량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라브4는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 라브4 가격은 ▲HEV XLE 4927만원 ▲HEV LIMITED 5746만원 ▲PHEV XSE 6160만원 ▲PHEV GR SPORT 6180만원 등이다.

코야마 마나부 대표는 “한국·일본·미국 등 다 마찬가지로 각 국 사정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며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한국에서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전시장에서 개막한 ‘유로사토리 2026’에 참가한 현대위아 전시장의 모습.

/현대위아

현대위아 ‘유로사토리 2026’ 참가

현대위아가 유럽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모빌리티 화력체계 등 방산 기술력을 선보였다.

현대위아는 오는 19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전시장에서 열리는 ‘유로사토리 2026’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위아가 유로사토리 전시회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차량형 화력체계를 실물로 선보였다. 기존 105mm 곡사포를 소형전술차량에 탑재한 ‘경량화 105mm 자주포’가 대표적이다.

미래형 무기체계인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선보였다. RCWS는 실내 모니터로 전장 상황을 모니터로 보며 원격으로 사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다.

/양성운 기자

쏟아지는 폐배터리... 회수·처리체계 등 대책 ‘제자리’

업계, EPR 도입 필요성 제기
“서두르지 않으면 부담 더 커질 것”

운데 LFP 탑재 비중은 2022년 2%에서 2024년 26%까지 상승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중저가 시장 대응을 위해 2026년부터 LFP 양산을 본격화할 계획이어서 LFP 배터리 보급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보급 속도와 달리 폐배터리 처리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기차 배터리 교체 주기가 8~15년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대 들어 확산된 LFP 배터리는 2030년 전후부터 폐기 물량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처리 부담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재활용 경제성이다. 삼원계(NCM)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 등 고부가 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금속 회수가 가능하지만 LFP는 주성분인 인산철의 가치가 낮아 회

수 수익이 제한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NCM은 첨단 공정을 통해 투입량의 95% 수준까지 회수할 수 있지만 LFP는 회수 가능한 가치가 15% 안팎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구조 변화도 처리 난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을 없애고 셀을 곧바로 팩이나 차체에 결합하는 셀투팩(CTP)·셀투바디(CTB)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제조 효율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폐배터리 해체와 선별 과정은 더 까다로워진다. 특히 일체형 구조의 경우 차량한대당 수백kg에 달하는 배터리 팩을 어떤 기준으로 분리하고 처리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EPR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PR은 생산자에게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LFP 배터리 자체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할지, LFP를 탑재한 전기차와 ESS 등 완제품을 대상으로 할지를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EPR이 시행되면 제조사와 수입사가 회수·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재활용 업체의 수익성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

이미 운행 중인 LFP 차량까지 포함하면 향후 처리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FP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회수·재활용 기준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처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보안체계 강화

삼성전자는 악성 앱과 메시지 등 모바일 금융 사기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갤럭시 기기 보안을 고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사는 올 하반기 스마트폰 신제품에 탑재될 ‘One UI 9.0’부터는 ‘피싱앱 위험 알림’을 한층 강화해, 피싱 앱의 설치 차단을 넘어 이미 설치된 앱이 악성 앱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앱의 실행까지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전 위협 앱 실행을 막고, 삭제까지 유도하는 방식으로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인다.

/차현정 기자 hyeon@

동반성장 평가 '매우 미흡' 신설... 은행·방산·플랫폼까지 확대

동반위, 88차 회의서 개편 의결 '양호' 빼고 최하위 D등급 추가 특화업종 단독평가·실적 50% 6대 은행 상생금융지수 산출 방산 체계기업 15곳 상생수준 평가 온라인플랫폼 시범평가 추진



이달과 동반성장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제88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반위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이 부실한 대기업, 중견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앞으로 '미흡'보다 낮은 '매우 미흡' 등급도 받을 수 있다.

기존 4개 등급 가운데 3번째 단계인 '양호'를 없애고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추가해 변별력을 높이기로 하면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상위 6대 은행, 방산 체계기업 15개, 그리고 배달플랫폼과 오픈마켓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도 시범 추진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제8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체계 개편안 ▲금융·방산·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 시범평가 추진안 ▲'빙화문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권고안 ▲'떡국떡·떡볶이떡' 품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을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동반성장지수 등급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최우수-우수-양호-보

통-미흡에서 '최우수(S)-우수(A)-보통(B)-미흡(C)-매우 미흡(D)'으로 바뀐다. 변경된 등급 체계의 경우 중간인 3단계를 양호로 매기면서 너무 후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등급체계 개편을 통해 '미흡'보다도 낮은 '매우 미흡'을 신설하면서 하청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매우 소홀한 기업들은 '낙인 효과'로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동반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가 어려웠던 특화 분야(업종)의 경우 이번 회의를 통해 동반위의 종합평가만으로 지수를 산정해 공표하는 '단독평가'도 신설했다"면서 "공정위 평가공백을 보완하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

량적 실적평가 비중을 상향(30%→50%)해 '실적평가 50% + 체감도 조사 50%'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관련해 유사 평가지표 통폐합, 실효성 부족 지표 삭제 등 평가지표 등도 개선한다.

금융·방산·온라인플랫폼 분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동반성장 평가도 시범 추진한다. '상생금융지수' 평가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방산 분야에 대한 상생수준 평가는 방산 지정 기업 중 체계기업인 강남, 기아, 대한항공, 풍산,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현대로템, 현대위아, HD현대중공업, HJ

중공업, LIG D&A, SNNT다이내믹스, SNT모티브 총 15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플랫폼 관련 동반성장평가 대상 기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빙화문제조업'에 대해 기존 권고사항을 유지하고 오는 2029년 3월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권고했다. 권고대상 대기업은 경동원, 동국씨엠, 아주스틸이다.

'떡국떡·떡볶이떡'은 생계형 적합업종 요건에 부합해 중소기업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중기부는 추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과 동반위원장은 "동반성장 평가를 제조·유통 등 전통 업종 중심에서 금융·생산·온라인플랫폼 등 신규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반성장을 다 분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또한 "지방정부, 지역 소재 대기업·공공기관, 동반위가 두루 참여하는 '지역 동반성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지방경제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모델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동화기업 동화자연마루 바닥재 탄소 저장량 첫 공인

25평 시공시 CO₂ 최대 956kg 고정

동화기업의 건강재 브랜드 '동화자연마루'가 자사바닥재 제품의 탄소 저장 능력을 산림청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국내에서 목질 바닥재의 탄소 저장량을 공인받은 것은 동화기업이 처음이다.

16일 동화기업에 따르면 이번 인증의 바탕이 된 '목재 제품 탄소 저장량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로 생산된 제품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을 측정해 표시하는 제도다. 목재의 탄소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제정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탄소 저장 능력을 확인한 제품은 강마루 ▲진 오리진 ▲진 그란데 ▲진 그란데 스퀘어 ▲진 테라와 강화마루 ▲크로젠이다. 제품별로 3.3㎡(제곱미터)에 약 34kg에서 최대 38kg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특히 ▲진 오리진과 ▲진 그란데 스퀘어 정사각형 규격으로 84㎡(25평)를 시공할 경우 최대 956kg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모두의 창업 1기 출범... 5000명 창업 레이스 돌입

서울 마포 SVC Seoul 120명 참석 韓 "생태계 구축해 창업국가 실현" 2차 7월초 공고, 다면평가 도입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Seoul)에서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이 열렸다. /김승호 기자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한 창직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이 본격적으로 맞을 올렸다.

하반기에 시작하는 '2차 모두의 창업'은 '글로벌 리그' 등을 추가하고, 신청 대상을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로 넓히는 등 새로 단장해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진행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놓고 "창업 이전의 스타트를 돕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오후 서울 마

포구에 있는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SVC Seoul)에서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장관을 비롯해 1기 선정자, 멘토 기관, 선배 창업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에서 열린 본 행사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 민과도 창업 열기를 공유했다.

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선발된 5000명의 혁신 주체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창업 전 과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통해 역동적인 '모두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명실상부한 창업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모두의 창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으로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형 인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형 인재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인재'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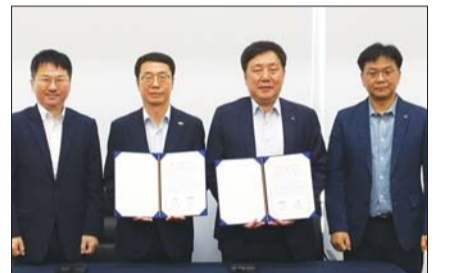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6만3000명이 지원해 1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5000명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전문 멘토링 ▲창업활동자금 ▲AI(인공지능) 솔루션 ▲구제 스크리닝(사전검토)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쳐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

멘토 기관으로 참여한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는 심사 총평을 통해 "이번 선발 과정에서 확인한 가장 큰 자산은 끝까지 해내겠다는 도전자들의 실행 의지였다"며 "멘토단 역시 도전자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다만 1기에 선발되지 못한 5만8000여 명에게는 별도의 제도전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왼쪽 2번째부터)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등이 지난 16일 신보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정원

기정원·신보중앙회 소상공인 R&D 지원 맞손

소상공인 기술개발·성장지원 협약

소상공인들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두 공공기관이 뭉쳤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 기술개발 및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정원이 운영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소상공인 R&D)과 신보중앙회의 보증 기능을 연계한 것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소상공인이 사업화 자금까지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정원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기업을 추천받아 선정평가를 거쳐 총 100억원 규모로 50개사를 지원한다. 아울러 R&D 지원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해 보증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기정원은 신보중앙회와 협력해 소상공인 R&D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청호나이스에 디자인권 침해 소송

서밋타워, 노블 공기청정기와 유사 판단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대상으로 자사의 공기청정기 디자인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코웨이에 따르면 청호나이스가 지난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2021년 출시한 자사의 '노블 공기청정기'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에 나선다는 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코웨이의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출범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 조치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서밋타워 공기

청정기가 ▲본체 사각 형상 및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주요 디자인 요소가 자사 제품과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2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코웨이는 또 외관이 유사한 제품이 출시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승호 기자

국제유가 하락에 내달 유류할증료 인하

이달보다 8단계 내려 20% 인하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여름휴가철 여행객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국제선 항공공의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20% 낮은 19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이달 적용 중인 27단계에서 8단계 하락한 수치로 대한항공의 경우 최대 구간 기준 유류할증료가 10만원 이상 줄어든다.

할증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가격이 내렸기 때문이다. 4월 16일~5월 15일 갤런당 410.02센

트에서 5월 16일~6월 15일 갤런당 338.3센트로 크게 낮아졌다. 국내 항공사들은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노선별 유류할증료를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국제선 편도 기준 최소 6만1500원에서 최대 45만1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최소 4만6400원에서 최대 34만4000원으로 인한다. 최대 구간 기준으로는 10만7500원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쇼크'로 국제선 노선을 축소하거나 운항을 포기했던 저비용항공사(LCC) 업계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더 크게 자라날 아이들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나가 아이들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한 눈높이 금융교육 지원

- 어린이 경제 뮤지컬 공연 개최
- 어린이 금융교실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 운영

보육환경 개선 및 돌봄 공백 최소화

- 100호 어린이집 건립
-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운영

자연을 주제로 34년째 이어온 환경 미술대회

-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

SKT, 'AX혁신2.0' 시동

AI 에이전트, 임직원과 함께 일한다

정재현 대표 '뉴 이천포럼' 진행
AI, 새로운 업무 주제로 정의
임직원 입·퇴사 절차처럼 관리
창의적·전략적 업무 집중 환경 구축

SK텔레콤이 인공지능 전환(AI)에 속도를 낸다. SK텔레콤은 'AX 혁신2.0'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재현 SK텔레콤 CEO는 '2026 뉴 이천포럼'에서 AX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AX 혁신 1.0'보다 한 단계 더 높은 AX 혁신 비전이다.

이번 'AX 혁신 2.0'은 구성원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게 특징이다. 먼저 AI를 구성원과 함께 일하는 새로운 업무 주제로 정의했다.

사내 AI 에이전트는 임직원의 입·퇴사 과정과 유사한 절차로 관리된다. 이를 위해 데이터, 보안 접근 권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제 임직원과 AI 에이전트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AI 에이전트가 업무 시스템 안에서 명확한 역할을 갖고 구성원과 협업함으로써 반복 업무는 줄이고, 구성원들은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AX 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기존에 관성적으로 수행하던 업무 방식



정재현 SK텔레콤 CEO가 지난 11일 경기 이천시 SKMS 연구소에서 열린 '2026 뉴 이천포럼'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을 AI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사내 실험이다. 직급·부서 구분 없이 수평적으로 운영된다.

AI CIC 조직 내 시범 운영을 통해 '멀티롤' 가능성을 확인했다. 멀티롤이란 한 사람이 여러 에이전트와 함께 기획, 개발, 디자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 방식이다. 또한 기획 업무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생산성이 개선되고 소통 및 의사결정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이를 향후 전사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성원들이 AI를 활용하

새로운 업무 방식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AI 활용 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SK텔레콤은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유연하게 AI 툴-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고도화한다. 에이닷 비즈, 플라리스, 플레이 그라운드 등 기존 사내 AI 개발 플랫폼을 통합하고 주요 사내 시스템과 연동해 업무 전반에서 AI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 업무 영역에서 AI 전환을 촉진하는 AX 카탈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성원들은 각 조직의 AX 성공 노후를 알리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AX 교육 체계도 구축한다. 시공간 제약 없이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AX를 위한 아이디어 공유 시스템은 'AX 라이브러리'로 재구성한다. 구성원들의 성공 경험이 자산으로 축적된다.

정재현 SKT CEO는 "AX의 일상화를 통해 구성원의 시간과 역량이 새로운 도전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구성원이 마음껏 AI 역량을 쏟고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KT, 셋톱박스 협력사에 메모리 비용 선지급

6개월치 미리 지급... 단가 부담 줄여

KT는 셋톱박스 수급 협력사에 메모리 구매 비용을 미리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KT는 최근 중동 리스크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가격 급등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확대에 따른 메모리 등 핵심 부품의 가격 상승과 수급 부담 확대도 배경이 됐다.

지원 대상은 셋톱박스 협력사다. 약 6개월 가량 활용할 수 있는 선금을 미리 지급했다. 메모리 수급 및 단가 인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향후 고객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협력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회사는 협력사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예보 기간을 최대 3년



KT협력사 임직원이 KT의 선금으로 확보한 메모리로 지니TV 셋톱박스를 제작·적재하고 있다.

/KT

까지 확대하고 공급망 리스크가 큰 품목은 장기계약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협력사가 우대 금리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상생협력 펀드를 공동 조성해 제공한다.

KT의 SCM실장 권한 전무는 "최근 공급망 위기는 개별 기업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며 "쉽지 않은 경영 환경이지만 메모리 선구매 지원을 비롯해 협력사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카카오톡 채팅방에 '챗GPT 챗봇' 도입

채팅방서 실시간 질문·답변

카카오톡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챗GPT 챗봇' 기능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챗GPT 챗봇은 그룹 채팅방과 1대1 채팅방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채팅방 우측 상단 메뉴에서 '챗봇'을 선택한 뒤 챗GPT 챗봇을 추가하면 된다. 이후 입력창에서 '챗GPT'를 맨션하고 질문이나 요청을 입력하면 채팅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입력창 하단 키보드 틀바에 새롭게 추가된 '챗GPT' 버튼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챗GPT 오늘 날씨 알려줘" 또는 "@챗GPT 생일 축하 메시지 작성해줘"와 같이 입력하면 챗GPT가 즉시 답변을 제공한다. 이어지는 대화는 답변 말풍선 하단의 '자세히 보기'를 눌러 연결

되는 '챗GPT 포 카카오톡' 서비스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현재 프롬프트 입력은 텍스트 방식으로 지원되며 이미지 생성 기능도 제공한다. "@챗GPT 바다 풍경 그려줘"와 같은 요청을 입력하면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답변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력창 상단에 '뉴스', '운세', '인기 질문' 등 자주 사용하는 대표 명령어를 배치했으며, 답변 시 질문한 이용자를 직접 맨션하는 기능도 적용했다.

카카오톡은 지난해 10월 오픈AI와 협력해 '챗GPT 포 카카오톡' 서비스를 출시하고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AI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왔다. 지난 5월 기준 챗GPT 포 카카오톡 누적 가입자는 1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되는 AI 에이전트 '카카오톡즈'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게임산업 승부처, 기술 아닌 ‘맥락’에 있어”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

내일까지 9개 분야·51개 세션 진행
게임 개발현장 AI 활용사례 등 조망
게임이 쌓아온 세계관·관계 중요

국내 최대 게임 산업 지식 공유 행사인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 26)'가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 넥슨 사옥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 NDC는 인공지능(AI)을 핵심 화두로 내세우며 게임 개발 현장의 실제 활용 사례와 미래 경쟁력을 집중 조명했다. AI가 구현의 장벽을 빠르게 허물고 있는 시대, 게임 산업의 승부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용자와 함께 축적한 경험과 관계, 즉 '맥락(Context)'에 있다는 메시지가 행사장을 관통했다.

NDC 26은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AI를 비롯해 기획·프로그래밍·아트·사운드·프로덕션·데이터 분석 등 9개 분야에서 총 51개 세션이 진행되며, 모든 세션은 ND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행사기간 판교 넥슨 사옥에서는 넥슨 IP 기반 게임아트 전시회 'NEXTAGE'도 함께 열린다.

이날 개막 환영사에 나선 이정현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AI를 인터넷 보급과 산업혁명에 비견하며 "AI는 거부할 수 없는 확정적인 흐름의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AI는 정보와 콘텐츠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낮추는 창작과 연산의 혁명"이라며 "그동안 해보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훨씬 쉽게 구현할



넥슨 NDC 현장.

/최빛나 기자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진단했다.

다만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과 함께 울고 웃는 감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와 경쟁하려 하지 말고 훌륭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정의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모두가 같은 도구를 손에 쥘 시대에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안목과 판단이고, 그 안목은 이용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강대한 넥슨코리아 공동대표는 AI가 코딩과 이미지 생성, 프로토타이핑 비용을 크게 낮추고 있지만 "우리만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쉬워진다"며 "경쟁의 무게중심은 구현의 수준에서 맥락의 깊이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 대표는 AI 시대 새로운 경쟁력을 '맥락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개발자가 오랜 시간 축적한 장르에 대

한 이해와 운영 경험, 이용자들이 함께 만든 관계와 추억, 세대를 거쳐 이어진 문화가 바로 맥락 자본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강 대표는 메이플스토리 사례를 꺼냈다. 범용 AI에게 메이플 캐릭터가 쓸 귀여운 모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디서나 불법한 결과물이나 오지만, 20년간 쌓인 메이플의 스타일과 이용자 취향을 이해하는 데이터가 더해질 때 비로소 '메이플다운' 결과물이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맥락"이라며 "유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술보다 그 게임이 쌓아온 세계관과 관계"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강연 말미에 AI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하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다른 하나는 유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축적한 지혜인 '축적된 지능'이다.

그는 "구현이 쉬워지는 시대일수록 첫 번째 AI를 누구보다 잘 활용하고, 그 위에 두 번째 AI를 누구보다 두텁게 쌓아가는 것이 게임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일레븐랩스, '더빙 v2'로 90여개 언어 더빙

원본 감정, 톤, 억양 반영 '특징' 드라마, 영화부터 게임 등서도 활용

인공지능(AI) 기반의 종합 음성 플랫폼 기업 일레븐랩스는 음성 AI 모델 '더빙 v2'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더빙 v2는 90여개 언어로 다국어 더빙을 수행하는 신규 음성 AI 모델이다. 특징은 원본의 감정과 톤, 억양 등을 반영해 다른 언어권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한다. 단어를 직역하는 방식이 아닌 문맥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들리는 표현으로 번역과 조정을 수행해 몰입감을 높인다.

또 번역 후 생성된 음성이 원본의 시작과 종료 타이밍에 맞춰 자연스럽게 정렬되도록 설계했다. 영상 자체를 조작하거나 립싱크를 강제로 생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발화 타이밍을 매끄럽게 맞춰 영상 시청의 어색함을 줄여준다.

자동 보이스 클로닝 기능도 돋보인다.

원본 화자의 음색, 피치, 톤을 자동 반영해 별도의 수동 클로닝 과정 없이도 화자 고유의 개성을 살린 다국어 더빙 생성이 가능해진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드라마, 영화뿐 아니라 게임 또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게임 캐릭터의 대사, 컷신, 튜토리얼 영상을 원본의 분위기와 캐릭터성을 유지하면서 다국어로 확장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본인의 목소리를 살려 해외 콘텐츠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 밖에 교육 콘텐츠나 관광 홍보 영상, 기업의 경영진 및 제품 소개 등에도 사용된다.

한편, 더빙 v2는 일레븐랩스 플랫폼에서도 고품질 다국어 더빙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제공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대출 늘고 순이자마진 개선 기대... 금융지주株 신고가 행진

이달 들어 KRX 은행지수 13.7% ↑
가계대출 잔액 전월비 6.9조 증가
KB금융,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예상



서울 시내에 시중은행 ATM기들이 모여있는 모습 /뉴시스

국내 금융지주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국내 증시로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주를 대거 사들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시총 13위인 KB금융은 시총 10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은 장중 18만27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BNK금융지주(2.50%), JB금융지주(2.54%), 하나금융지주(2.09%) 등도 2%대 강세를 보였다. 최근 은행주 흐름도 견조하다. 이달 들어 KRX 은행 지수는 13.7% 뛰었다.

시장에서는 커지고 있는 금리 상승 압력이 은행주의 추가 흐름을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개선 기대가 커지는 반면, 증권사는 채권 평가손실 우려

와 투자 심리 위축 영향을 받는다. 증권가 전문가들도 “금리가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증권주보다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 속도를 높이면서 전 세계의 국고채 금리가 튀어 오르고 있다.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다시 긴축 기조로 돌아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감도 빠르게 후퇴했다. JP모건은 “매우 정밀하게 분석

해 보면, 여러 다양한 통화정책 준칙을 평균 내어 산출한 적정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 범위는 4.0~4.85%로 나타난다”며 “이는 현재의 금리 범위인 3.5~3.75%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JP모건은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5%를 넘어선 적이 없었으나, 최근 그 임계값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 한국은행 총재 등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잇따라 시사했다. 시

장에서는 한국 기준금리의 7·8월 연속 인상뿐 아니라 한은이 한 번에 0.50%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실적 기대감도 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 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81조8000억원으로, 4월 말보다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4년 8월(9조2000억원 증가)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홍콩 ELS 과징금 환입 효과와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 확대에 힘입어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 연구원은 2분기 은행권 전체 순이익이 전 분기 대비 10.3% 증가한 7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은행 NIM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2분기 평균 증권거래대금도 1분기 대비 약 30%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 이익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KB금융의 경우 2분기 순이익이 1조9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해 지주사 설립 이후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하나증권은 KB금융의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상향한 22만원으로 제시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도 “기업과 가계의 대출 수요가 모두 늘어나면서 은행의 가격 경쟁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며 “대출 재원도 저원가성 수신 중심으로 조달되고 있어 대출 성장과 NIM 회복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외국인들도 금융지주를 사고 있다. 이달 들어 KB금융, 신한지주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 20위권에 포함됐다.

다만 환율 상승이 변수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500원대를 울돌면서 은행 주주의 자본 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경우 주요 은행지주의 핵심 자본 비율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소폭 하락할 수 있다. 특히 CET1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직결되는 핵심 지표인 만큼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은행주 투자 심리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스페이스X, IPO 흥행에 그린슈 전량 행사

공모 규모 857억달러로 확대
공모가 대비 주가 19.3% 상승



스페이스X /AP·뉴시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SpaceX)가 기업공개(IPO) 흥행에 힘입어 초과배정 옵션(그린슈)을 전량 행사하면서 최종 자금 조달 규모를 857억달러(약 130조원)로 확대했다.

15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IPO 공동주관사들이 보유한 초과배정 옵션을 모두 행사하면서 총 6억3889만주의 A종 보통주 발행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번 IPO를 통한 최종 조달액은 당초 계획했던 750억달러보다 107억달러 늘어난 857억달러로 집계됐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 11일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하고 보통주 5억5556만주를 매각해 약 750억달러를 조달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주관사들이 보유한 8333만주 규모의 초과배정 물량이 추가로 발행되면서 전체 공모 규모가 확대됐다.

그린슈로 불리는 초과배정 옵션은 대형 IPO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다.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웃돌 경우 주관사는 해당 옵션을 행사해 추가 주식을 확보하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해 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번 그린슈 행사 배경에는 상장 직후 나타난 강한 투자 수요가 자리하고 있다.

스페이스X 주가는 나스닥 상장 첫 거래일인 지난 12일 공모가 대비 19.3%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다. 시장이 공모 물량을 무난히 소화한 데 이어 추가 공급 물량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해지

면서 주관사들은 초과배정 옵션을 전량 행사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가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이번 IPO는 당초부터 조달 규모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주목받았으며, 그린슈 행사까지 더해지면서 규모가 한층 커졌다.

그린슈는 단순히 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주관사들은 상장 직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물량을 공급하거나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격 급등락을 조절할 수 있다. 투자 수요가 강할 경우 추가 물량 공급을 통해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반대로 수요가 약할 경우 시장 매수를 통해 추가 하락을 완화하는 구조다.

이번 IPO에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시티 그룹 등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했다. /허정윤 기자

서학개미, AI 반도체·한국 증시 동시 베팅

해외주식 Click

SOXL 일주일새 5.6억달러 순매수

국내 투자자(서학개미)들이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주와 한국 증시 상승 가능성에 동시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성장주 중심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상장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인 SOXL을 5억6144만달러 순매수하며 해외주식 순매수 1위에 올랐다. 한국 증시를 3배로 추종하는 KORU는 1억5245만달러 순매수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마이크로, 마벨테크놀로지, TQQQ, QLD, 마이크로 2배 레버리지 ETF(DXN MU Bull 2X ETF), QQQ 등이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관련 종목에 집중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OXL은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마이크로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최근 AI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설 기대가 이어지면서 관련 종목에 대한 낙관론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마이크로와 마이크로 2배 레버리지 ETF가 동시에 상위권에 오른 점도 눈길을 끈다. 시장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가 지속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마벨 역시 AI 네트워크 반도체 수요 확대의 대표 수혜주로 꼽힌다.

동시에 서학개미들은 한국 증시 상승에도 적극적으로 베팅했다. KORU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 대표 종목들로 구성된 MSCI Korea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최근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목전에 둔 가운데,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추가 상승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지난해 9월 1555억달러 수준에서 올해 5월 2041억달러까지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는 1903억달러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음에도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선호가 약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운용, ETF 토큰화 시장 진출

온도파이낸스와 업무협약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실물자산(RWA) 토큰화 플랫폼 기업인 온도파이낸스(Ondo Finance)와 디지털자산 기반 투자상품 및 토큰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ETF 토큰화, 온체인 자산운용 인프라 구축, 글로벌 투자자 대상 디지털 투자상품 개발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국채, 펀드, 부동산 등 전통 자산

의 토큰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프랭클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 블랙록(BlackRock) 등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이 토큰화 사업에 진출하는 등 기관 차원의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다.

온도파이낸스는 미국 국채 기반 토큰화 상품(USDY, OUSG)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토큰화하며 RWA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Ondo의 토큰화 주식·ETF 플랫폼인 온도 글로벌 마켓(Ondo Global Markets)은 총 예치자산(TVL)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60개 이상의 토큰화 증권을 제공하고 누적 거래량 18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등 토큰화 주식 부문에서 세계 최대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토큰화(Tokenization)는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형태로 표현하는 기술이다. Ondo 토큰화 ETF는 기존 ETF로 완전히 담보·뒷받침되지만, 별도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권 형태로 발행·거래된다. 이를 통해 24시간 거래와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T+0)가 가능해지며,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시아 자산운용사 중 최초로 기존 상장 ETF 라인업의 토큰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판매채널을 확장한다. /허정윤 기자

‘KODEX AI반도체TOP2+’ SK스퀘어 편입

삼성자산운용, 6월 정기변경 완료

삼성자산운용은 이 같은 내용으로 6월 정기변경(리밸런싱)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정기변경 이후 첫 영업일인 15일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는 하루 만에 7.15% 급등했다.

이번 6월 정기변경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공급망인 SK하이닉스의 지분을 보유한 ‘SK스퀘어’가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다. SK스퀘어는 향후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와 궤를 같이하며 ETF 전체의 주가를 견인할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공정위, 신고자도 심의 전 의견 낸다 사건처리 절차 등 참여권 대폭 확대

상정 사실 신고인에 즉시 통지
정식 심의 전 의견 낼 길 열어
피심인 중심 절차 보완에 초점
처분 투명성·공정성 제고 기대
중복신고 확인해 부처 협업 강화
내달 7일까지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피심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 위주로 흘러가던 심의 단계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넓혀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는 취지다.

공정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의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신고인에게 사건심사 착수 사실, 조사진행 상황, 심의개최일, 사건처리 결과 등만 통지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까지 통

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피심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신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핵심 과정이다. 개정안은 신고인 등이 심사관에게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정식 심의 전부터 신고인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사건 처리 효율

성과 부처 간 협업을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부당 표시광고 신고서식에 '타 기관 중복신고 여부'를 기재하는 칸을 신설해, 신고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타 부처에 신고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부처 간 협업을 원활히 진행토록 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 중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 기준을 현행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현실화했고, 공정위 직제 개편에 따라 각 사건 신고서 하단의 상담 안내 담당 부서명(과·팀)과 전화번호 등 조문 체계도 일제히 현행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됨으로써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의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올여름 여행은 농촌으로 떠나요”

농식품부, 농촌여행 페스티벌 개최
송미령 장관 서울광장 행사 참석



미있게 농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송장관이 밝힌 정부 추진 사안은 ▲다양한 농촌의 부존자원을 연계

정부가 도시민의 농촌여행 장려에 나섰다. 각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미식 상품과 지역 특색을 살린 볼거리 창출 등 농촌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대국민 홍보 목적의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16일 직접 행사장을 찾았다. 그는 기념사를 통해 "농촌은 자연과 문화, 미식과 치유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라며 가족단위 농촌 여행을 권했다.

농촌여행 페스티벌 행사 관련해서는 "도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쉼과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고, 농촌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이 되며, 지역경제에는 소중한 힘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쉽고 재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 개발 운영 및 홍보 지원 ▲K-푸드와 농촌관광을 연결하는 K-차킨벨트 등 미식벨트 조성 확대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 조성 및 편의·안전 인프라 확충 등이다.

송 장관은 이날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국무위원들에게도 농촌여행 관련한 홍보를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여름 여행은 농촌으로', '비빔 일상 속 쉼표 촌캉스'라는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도 열렸다. 송 장관을 비롯해 각 유관기관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장, 농업인단체장 및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T 글로벌마케팅 교육, K-푸드 수출 성과

승화푸드, 美 벨로팜스와 수출 계약
간편식 4종 1억1000만원 첫 선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소속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글로벌마케팅 교육'이 실제 해외 수출로 이어졌다.

16일 aT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의 교육생 기업인 승화푸드는 미국 현지유통사인 벨로팜스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1억1000만 원 상당의 첫 물량을 지난 12일 선적했다. 승화푸드는 김치 등 절임식품, 간편식, 밀키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해당 수출계약은 지난해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의 K-푸드 아카데미 제4기 농식품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과정'에서 마련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계기로 성사됐다. 수출 품목은 잡채, 호박죽, 고구마 맛탕, 탕평채 떡볶이 등 간편식 4종으로, 미국 전역의 벨로팜스 유통망 22개 매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승화푸드는 교육과정에서 미국 시장 분석, 현지 소비자 트렌드 파악, 바이어 상담 전략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했다. 또한 담당 교수의 1:1 코칭과 실전형 바이어 상담회를 거쳐 실제 수출 계약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과정'은 농식품 제조·유통 및 수출 희망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상품력 강화 전략 ▲전략적 광고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출 실무 이해 ▲바이어 발굴 지원 ▲글로벌 인증과 수출 계약 분쟁 대응 전략 ▲글로벌 전자상거래 입점 및 마케팅 전략 등이다. 또 국내외 선도기업 현장 방문과 국제식품박람회 참관 등 해외연수도 함께 진행된다.

기운도 aT 유통이사는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의 현장 중심 실무교육이 농식품 종사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전KDN, AI 채용으로 신입 175명 선발

전년비 75% 늘린 대규모 채용
5500여명 지원, 경쟁률 32대 1
6년 만에 5직급 채용 재개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인공지능(AI) 프로세스를 전격 도입하고 직무 중심의 열린 채용을 통해 상반기 신입사원 175명을 대거 선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5% 확대된 규모다.

한전KDN은 지난 15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 빛가람홀에서 '2026년 신입사원 입사식-KDN New Beginning'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55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3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채용은, 특히 취업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에 5직급 채용을 재개해 취업 시장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전KDN은 이번 채용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프로세스'를 본격 도



박상형(오른쪽 첫 번째) 한전KDN 사장과 노조 대표가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대표에게 환영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KDN

입해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우선 서류전형 과정에 AI를 활용해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에 내포된 중대 결함을 사전에 검출할 수 있도록 해 지원자 편의성을 제고했다. 전산 분야에는 AI 활용 실기 평가를 새롭게 도입해 직무 최적화 맞춤형 인재를 선별했다. 면접 과정에서도 AI가 분석한 지원자별 자기소개서 맞춤형 질문지를 활용해 심층적인 역량

검증을 진행했다. 여기에 6년 만에 재개된 5직급 신입사원 채용에는 지원 자격 제한을 완전히 폐지했다. 필기시험의 직무 지식 비중을 65%로 확대하고 1인당 면접 시간을 늘리는 등 철저히 '현장 직무 중심'으로 채용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다양성에 기반한 열린 채용도 돋보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력거래소, 충북 오송 중부본부 개청

나주 중앙관제센터와 실시간 연동
재난 상황에도 계통·시장 가동 지속

전력거래소가 충북 오송에 새로운 중부본부를 개청하며, 국가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이 대형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가동될 수 있는 '상시 이중화 운영체계'를 갖추게 됐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바이오플리스에서 '중부본부'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부본부 개청은 육지 이중 전력관제센터 구축과 함께 차기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및 차기 전력거래시스템(MMS)의 운영 개시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영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일원에 자리 잡은 중부본부는 연면적 7840㎡,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사업비 약 377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건축물 에너지효

율 1++등급과 제로에너지 4등급을 획득하는 등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건축물로 건립됐다.

중부본부 건립은 지난 2017년 천안 지역 산사태 당시 발생한 후비 전력관제센터 침수 사고를 계기로 전력계통 운영의 재난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0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본격 추진됐다.

중부본부의 가장 큰 특징은 나주에 있는 중앙전력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이중 전력관제센터 및 전력거래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소·연안선사 금융지원 1조1000억 투입

해수부·해진공, 2차 특별지원 추진
1차보다 5000억 늘려 6년간 지원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연안선사에 대한 '해양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 이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2026~2031)'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총 지원 규모는 6년간 총 1조1000억원으로, 1차(2022~2026) 때보다 100% 이상(+5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대상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신규로 포함했다. 또 기존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지원 기준을 이제 막 중견기업에 진입해 지원 공백을 겪는 '신규 중견선사'로 확대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기존 대비 20%포인트(p) 상향해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대출이자 지원 금액 한도도 대출원금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해운조합·예선조합 등을 통해 2척 이상 선박을 공동 발주하는 경우에 대한 금리 우대 조항을 신설했다.

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이달 17일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해운정책과 또는 해진공 중소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중소·연안선사와 예·도선사는 국내 해운산업을 받쳐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제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중동전쟁과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풀스택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경남, 18개 시군 목표달성도 93.8%... 1위 '통영시·남해군'

주요업무 118개 정량지표 평가 전년보다 2%p ↑, 12개 시·군 개선 통영시 95.9%, 시부 1위·최대 상승 남해군 100.3%, 군부 선두 기록 우수사례 정성 78건·도민평가 12건 특조금 20억 차등지원, 성과 확산



경남도청 본관 전경.

경남도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6년(2025년 실적) 18개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결과 중 정량지표인 목표달성도 평가에서 시부는 통영시(95.9%), 군부는 남해군(100.3%)이 1위를 차지했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국정 연계 정책과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종합평가다. 경남도는 시군 행정 역량 강화와 도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국정 연계 지표 91개, 도역점과제 27개 등 총 118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량지표(목표달성도, 99개 지표), 정성지표(우수사례, 19개 지표), 도민평가(우수사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정량지표 평가에서 18개 시·군 평균 목표달성도는 93.8%로 전년도 91.8%보다 2%포인트(p) 상승했다. 12개 시·군의 목표달성도가 전년 대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에서는 통영 95.9%, 밀양 95.4%, 김해 92.8% 순이었다. 군부는 남해 100.3%, 거창 100%, 함안 99.2% 순으로 높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통영시는 전년 대비 11.1%p나 상승해 도내 최대 향상 폭을 기록했다.

정성평가에서는 총 7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시부는 김해 12건, 거제 9건, 진주 6건 순이었고 군부는 창녕 10건, 거창 8건, 하동 5건 순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대표 우수사례에는 김해시 제13차 관광진흥기구(TPO) 총회 유치와 거창군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국무조정실)이 포함됐다.

도민평가 부문에서는 18개 시·군이 2건씩 추천한 36건 중 1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부에서는 진주 2건, 김해·밀양·거제 각 1건, 군부에서는 산청 2건, 의령·고성·남해·함양·거창 각 1건이 선정됐다.

특히 진주시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산청군 '지리산미개방구간(장당계곡) 탐방행사'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18개 시·군에 차등 배분하고 우수 시·군과 유공 공무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는 경남도 누리집에 공개해 시·군 간 정책 확산과 행정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국가 정책과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도민이 삶의 현장에서 행정서비스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교육청

STEAM+ 클럽 160개로 운영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 'STEAM+ 클럽'을 160개 동아리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STEAM+ 클럽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연계해 해답을 찾는 학생 주도형 탐구 프로그램이다. 동아리는 교사 1명과 학생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프로젝트 중심 활동으로 운영된다. 경북교육청은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등학교 23곳, 중학교 16곳, 고등학교 46곳 등 85개교에서 160개 클럽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창원시

불락 어린고기 51.7만 마리 방류

창원시가 연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불락 어린고기 약 51만 7000마리를 해상 방류했다고 밝혔다. 방류 해역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육계, 진동면 주도·덕동, 진해구 잠도 일대다. 기후 변화와 연안 환경 변화로 줄어드는 어업자원을 보충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앞으로 문치가자미 어린고기 약 20만 2000마리도 마산합포구 육계 등 4개 해역에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매년 불락 치어 방류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구미, 경북도민체전 종합우승 해단식

8년 만 원정 정상, 2년 만 왕좌 복귀 30개 종목 944명 출전, 256.5점 획득 15개 부문 석권, 대회신 10건 작성



김장호 구미시장이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종합우승 해단식에서 우승기를 흔들며 선수단의 성과를 축하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15일 구미시체육회관에서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구미시선수단 해단식을 열고 종합우승의 성과를 기념했다.

구미시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의장, 윤상훈 구미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인과 선수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대회 성과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우승기·우승컵 전달, 유공자 표창과 장학금 수여, 특별공로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종합우승 달성에 기여한 선수와 지도자, 종목단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미시는 지난 4월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30개 종목 944명의 선수단을 출전

시켜 종합점수 256.5점을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2018년 이후 8년 만의 원정 우승이자 2024년 구미 개최 대회 우승 이후 2년 만의 정상 복귀다.

선수단은 15개 종목에서 우승했고 수영 8건, 롤러 2건 등 모두 10건의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수영의 천채영, 흥진영, 양지원, 이은영 선수는 각각 4관왕에 올랐으며 천채영 선수는 대회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했다. /구미(경북)=김준한 기자 jingon@

경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

2029년까지 408억 투입해 관망 정비

경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해 제2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위탁해 추진되며 동진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시는 지난달 동천동 우선착수 구간 공사에 들어갔으며, 2029년 12월까지 총사업비 4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동천동·황성동·용강동 일원으로 노후 상수관망 91km를 교체하고 누수 탐사와 복구를 병행한다. 우선착수 지역인 동천동에는 19억원을 들여 노후관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사업이 완료되면 우수율 향상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함께 녹물 발생 등 노후관로로 인한 민원 감소,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일부 공사 구간이 주거지와 상가 밀집지역을 통과해 교통 혼잡과 소음, 비산먼지 등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상가 밀집지역과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야간 공사를 실시하고 살수차 운영과 신호수배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산역에 AI 다국어 안내 키오스크 운영

부산교통공사, 13개 언어 관광객 지원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부산역에 생성형 AI 기반 다국어 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어로 말을 걸면 교통·관광 정보를 대화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사에 따르면 'AI Busan Metro Help Desk'로 이름 붙은 이 키오스크는 역 정보와 운임 체계 등 부산도시철도 관련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 방법, 환승 경로, 주변 관광지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해 총 13개 언어를 지원한다. AI 안내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발생하면 역무원과의 원격 화상 연결로 전환되며 역무원의 안내 내용은 진행간 통역을 거쳐 이용객에게 전달된다.

도시철도 부산역은 KTX 등 전국 철도망과 도시철도가 교차하는 관문으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도시철도 부산역에서 AI 기반 안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이동을 위해 처음 접하는 역이다. 부산연구원에 따르면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2023년 182만 명에서 2025년 364만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소음이 큰 부산역 환경도 고려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 웰니스관광지 6곳 신규 선정

경주·안동·문경·칠곡·봉화·울진 포함

경북도가 치유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2026년 경상북도 웰니스관광지' 6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신규 선정지는 ▲소노캉경주 웰니스플랜스파(경주) ▲선성현문화단지(안동) ▲사담재스테이(문경) ▲성 베네딕도회 문화영성센터(칠곡) ▲국립백두대간수목원(봉화) ▲울진군 요트학교(울진) 등이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 웰니스관광지는 기존 24곳에서 30곳으로 늘었다. 신규 관광지는 뷰티스파 1곳, 힐링·명상 1곳, 스테이 2곳, 자연치유 2곳으로 구성돼 지역의 다양한 치유자원을 반영했다.

경북도는 선정 관광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여행사 연계 상품 운영과 온라인 할인 프로모션,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

기존 지정 관광지에 대해서도 운영 실태 점검과 품질관리를 병행해 서비스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경북도는 내년 4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산림·해양·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경북형 웰니스관광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차별화된 웰니스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품질 치유관광 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하동군

유기동물 입양 상반기 54% ↑

하동군 유기동물보호소의 올해 입양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유기동물 51마리가 새 가정에 입양, 지난해 같은 기간(33마리)보다 약 54.5%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총 입양 건수가 73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에 이미 연간 실적 약 70%에 도달한 셈이다. 북천 꽃양귀비 축제 기간 주말마다 유기동물 입양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관광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현황과 입양 절차, 지원사업 등을 안내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행정소송 등 법정공방 확산 조짐 업계 “결론까지 최소 3~4년 소요”

쿠팡 ‘역대최대 과징금’ 후폭풍

쿠팡, 법적 구제절차 진행 예정
소송 참여 소비자 50만명 추산
일각선 과징금 형평성 문제 제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6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사 집단소송과 집단분쟁조정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번 사태는 장기 법정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1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쿠팡Inc는 SEC 공시를 통해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 사실을 알리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3~4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타사 행태정보 무단 수집, 쿠팡풀필먼트 서비스(CFS)의 민감정보 처리 등 복수의 위반 혐의가 함께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대급 유출 규모와 복잡한 법적 쟁점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개인 이력과 이메일 정보 약 3755만 건, 배송지 관련 정보 약 1억4800만 회가 유출됐다. 법정에서는 유출 경위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행태정보 무단 수집과 민감정보 처리 적법성 여부까지 쟁점으로 더해지면서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도 장기전 가능성에 무게를 실는다. 메타의 ‘친구정보 제3자 제공 사건’은 과징금 부과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 4개월이 소요됐다. 2022년 맞춤형 광고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과 메타 역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이용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확대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 LKB평산, 일로, 호인, 노바, 도울 등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여러 로펌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법조계 추산 약 50만 명에 달한다. 원고들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다.

쿠팡은 지난 3월 첫 재판부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반면 개보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중단했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재개하고 추가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분쟁조정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반면 보수·경제계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재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는 쿠팡 유출 정보가 금융정보나 민감정보가 아니고 실질적인 2차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순 건수 기준 과징금 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보다 4.6배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규모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유통업계 “토이스토리5 캐릭터 만나보세요”

신작 개봉에 맞춰 마케팅 강화

디즈니·픽사의 대표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5’의 개봉에 맞춰, 유통업계가 전방위적인 캐릭터 협업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식음료부터 패션,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이 한정판 협업 상품과 굿즈, 프로모션은 물론 오프라인 팝업스토어까지 잇달아 선보이며 팬심과 소장 수요를 동시에 공략하는 모습이다. 캐릭터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이 소비자 경험을 강화하는 동시에 매출 확대를 이끄는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뷰티 및 패션 영역에서는 일찍이 ‘토이스토리’ 캐릭터를 입은 한정판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니스프리는 ‘돌아온 토이스토리 친구들과 Play Again!’을 주제로 레티놀 시카 한정 앰플, 비타민C 캡슐 세럼 등 인기 제품 4종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했다. 특별 세트 구매 시 버즈·제시 파우치나 테마 키링을 증정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마미케이는 인기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한 홈 경락 디바이스 ‘브이제라’와 ‘웬터프라이밍’ 에디션을 선보였으며, 더마 브랜드 세타필 역시 민감 피부용 SA 위시와 로션을 한정판 기획세트로 구성했다.

패션·주얼리 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빈티지 캐주얼 브랜드 ‘999휴머니티’는 영화의 시그니처 대사에서 영감을 받은 서머 컬렉션 ‘YOU’VE GOT A FRIEND IN ME’를 통해 그래픽 티셔츠와 카고 팬츠 등을 제안했다.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는 카우보이 부츠와 버즈라이트이어를 형상화한 참(Charm) 제품으로 일상 스타일링 수요를 겨냥했다.

라이프스타일 습 버터샵도 알린, 포키 등 캐릭터를 활용한 스포츠 콘셉트 컬렉션을 통해 포토카드 홀더, 파자마 등 100종이 넘는 풍성한 라인업을 선보였다.

식음료 및 식품 업계는 한정판 패키지와 테마 메뉴, 이색 프로모션으로 무장해 소비자들의 눈과 입을 동시에 사로잡고 있다.

롯데웰푸드의 대표 초콜릿 브랜드 ‘가나’는 ‘토이스토리5’ 테마의 한정판 온팩 제품 5종을 출시했다. 우디, 버즈뿐만 아니라 이번 신작의 뉴페이스인 ‘틸리페



베스킨라빈스, 디즈니코리아 협업 굿즈 ‘토이스토리 키즈 우의 세트’ /베스킨라빈스



가나초콜릿 ‘토이스토리5’ 테마 협업 패키지 /롯데웰푸드

드’까지 패키지 디자인에 전면 적용했다. 가나마일드 2종, 가나밀크 3종으로 구성된 이번 신제품은 제품 후면 QR코드를 연계한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7월 5일까지 ‘가나 초콜릿 또는 애착 인형과 함께한 추억 남기기’를 주제로 달달을 달던 추억을 통해 영화관람권과 캐릭터 봉제인형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이를 통해 3040 세대는 물론 ‘잘파(Z+Alpha)’ 세대까지 아우르는 트렌디한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베스킨라빈스는 우디와 버즈를 테마로 한 6월 이달의 맛 플레이버 2종과 함께 ‘포키와 친구들의 파티 케이크’, ‘토이스토리 5 프렌즈 와썬’ 등 캐릭터 데코를 더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출시했다. 베이커리 브랜드 두레쥬르는 캐릭터 키캡으로 장식해 키덜트족의 수집욕을 자극하는 ‘벳츠 클릭 케이크’를 포함한 테마 제품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네추럴라이즈와 데일리 역시 키즈 멀티비타민부터 성인용 유산균, 콜라겐 제품 패키지에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해 타깃층을 넓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단한 팬덤과 높은 화제성을 갖춘 ‘토이스토리’ IP는 불황기 유통가에서 흥행을 보장하는 핵심 치트키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색 콜라베레이션과 전방위적 마케팅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드라마 속 메뉴가 현실로… 컬래버 상품 봇물

편의점업계, 콘텐츠 커머스 경쟁 치열
‘취사병 전설이 되다’ 대표 메뉴 출시

편의점 3사가 CJ제일제당 및 화제의 밀리터리 쿡방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와 손잡고 극 중 메뉴를 현실로 구현한 간편식 시리즈를 대거 출시하며 콘텐츠 커머스 경쟁에 불을 붙였다.

16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이날 CU·GS25·세븐일레븐은 ‘취사병 전설이 되다’ 컬래버 상품을 일제히 출시했다.

취사병 전설이 된다는 종대신 식감을 선택한 이등병 강성재가 전설의 취사병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밀리터리 쿡방 판타지물이다. 공개 첫 주 만에 누적 디지털 콘텐츠 조회수 1억 2000만 뷰를 돌파하고, 티빙 주간 유료 가입 기여자수 3주 연속 1위, tvN 최고 시청률 10.8%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CU는 드라마 속 레시피를 그대로 살린 ‘취사병 옛날 햄버거’와 ‘취사병 고추장 라구 파스타’를 선보였다. 군대리아



CU 모델이 ‘취사병 전설이 되다’ 협업 간편식 2종을 선보이고 있다. /BGF리테일



세븐일레븐 ‘그럴싸한간장찜닭도시락’ /코리아세븐

에서 착안한 햄버거는 사과잼과 캐러멜 라이즈드 양파를 곁들였고, 파스타는 토마토 라구 소스에 고추장을 집목해 육전, 간빵 티라미수 등과 함께 풍성하게 구성했다.

GS25는 극 중 돈가스 편과 산채비빔밥 편을 모티브로 삼아 돈가스 2장을 담은 ‘취사병 정성을 담은 돈가스’와 군 생활의 향수를 자극하는 맛대시 고추장을 넣은 ‘취사병 산채불고기비빔밥’을 출시했다.

세븐일레븐 역시 주인공의 대표 메뉴를 재현해 춘장을 더한 레시피의 간장

찜닭과 만두강정 등을 담은 ‘그럴싸한 간장찜닭도시락’을 내놓으며 경쟁에 가세했다.

편의점 업계가 이처럼 콘텐츠 협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가성비와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협업 상품이 원작 팬들에게는 작품 속 메뉴를 직접 맛보는 이색 경험을, 일반 고객들에게는 군 생활의 추억과 함께 가성비 높은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대상, 홍초 제품군 확대… 글로벌 시장 연다

발효기반 건강음료 시장 본격 공략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저당 음료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대상이 대표 발효음료 브랜드 ‘홍초’의 저당 제품군을 확대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대상 청정원은 16일 ‘저당 홍초 석류’와 ‘저당 스틱 석류’, ‘저당 스틱 레드애플’ 등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5월 당 함량과 칼로리를 낮춘 ‘저당 홍초’ 2종을 선보인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온음료로도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추가 출시하며 제품군을 확대해 왔다.

이번 신제품은 홍초의 대표 플레이버인 석류를 저당 제품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1회분씩 개별 포장한 스틱형 제품을 추가해 휴대성과 음용 편의

성도 높였다. 대상이 자체 생산한 알룰로스 사용했으며, 저당·저칼로리 제품군에 적용하는 자체 앰블럼 ‘LOWTAG(로우태그)’를 부착했다. 또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와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난소화성말도덱스트린을 함유한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출시했다.

대상은 이번 라인업 확대를 계기로 발효 기반 건강음료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일본과 베트남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오리온그룹, 675억 규모 자사주 소각

소각 예정일 23일… ‘주주가치 제고’

오리온그룹이 주주환원 정책에 속도를 내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행보를 본격화한다.

오리온홀딩스와 오리온은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지난 3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최근 개정된 상법 시행에 발맞춰 자사주 소각 계획을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6월 23일이다.

구체적인 소각 규모를 살펴보면, 오리온홀딩스는 발행주식 총수의 3.97%에 해당하는 248만 8770주를 소각한다. 이는 장

부가 기준 116억 원, 지난 15일 종가 기준으로는 약 665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오리온 역시 발행주식 총수의 0.02%인 7344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장부가 기준 6억 원, 15일 종가 기준 약 10억 원 규모다. 양사가 소각하는 자사주 가치는 종가 기준 총 675억 원 규모에 이른다.

오리온그룹은 올해 들어 배당 규모를 전격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친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 확대에 이어 자사주 전량 소각을 결정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견고한 성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그 성과의 과실이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K-뷰티’ 올라탄 제약사들... 브랜드 성적표는 ‘극과 극’

대원제약 자회사, 뷰티실적 부진
‘센텔리안24’ 해외 수출 332% ↑
한미약품, ‘아데시’ 공식 론칭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추가적인 수익 창출원을 확보하기 위해 뷰티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브랜드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국제약은 더마 뷰티 브랜드 ‘센텔리안24’를 앞세워 미국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은 최근 신규 브랜드 공개로 속도를 내는 반면 과감한 인수합병으로 기대감을 높였던 대원제약은 ‘뷰티 부진’ 개선에 나선다.

1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뷰티를 새 성장 축으로 세운 가운데 연이은 인적 쇠신을 단행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이날 에스디생명공학 신임 대표로 김해원 전(前) 씨엠에스랩 상무가 합류했다고 밝혔다. 김해원 신임 대표는 아모레퍼시픽, 네오팜, 씨엠에스랩 등 국내 뷰티 기업에서 26년 경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제약은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 국내외 영업 등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킬 성



미국 ‘틱톡샵 K-뷰티 콜렉티브’에 참가한 센텔리안24.

장 포트폴리오를 김 신임 대표에게 맡긴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근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뷰티 사업 구원투수로 외부 전문가를 확충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원제약은 지난해 11월에도 백인영 헬스케어사업본부장을 에스디생명공학 신임 대표로 전격 선임했다. 대주주 차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해 시장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였다.

백인영 대표는 과거 대원헬스케어 인수



동아제약 ‘파티온’의 포도당 하이드로 액티브 세럼.

후 통합 과정을 종결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중점을 둔 사업 전략을 펼친 바 있다. 에스디생명공학 역시 백인영 대표 체제에서 급한 불을 끄며 조직 재정비와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 왔다.

2023년 12월 회생 절차를 밟던 에스디생명공학의 경우, 대원제약이 인수해 2024년 2월부터 자회사로 편입시켰으나 대원제약의 화장품 사업은 반등하지 못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외형 축소와 수익성 악화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0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 11억 원에 이어 적자다.

뷰티를 중심으로 토탈 헬스케어 사업을 안착시킨 동국제약의 성적표는 대원제약의 잔혹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화장품 사업을 포함한 동국제약 헬스케어 부문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동국제약의 헬스케어 매출은 지난해 3164억원을 올리며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해당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13.9% 수준이다.

특히 핵심 뷰티 브랜드 ‘센텔리안24’는 글로벌 수출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32%라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미국 뷰티 편집숍 알타 뷰티 등에 입점하는 등 현지에서 브랜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동국제약이 거대한 매출 불륨을 앞세워 격차를 벌이며 달아나는 상황에서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도 뷰티 영토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동아제약은 국내 대표 헬스앤뷰티숍 C

J올리브영 등에 더마 화장품 ‘파티온’을 내놓는 등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한다. 여드름 흉터 치료, 피부 재생 등 기존 제약 기술 노하우를 화장품에 이식한 고기능성 제품군으로 차별화를 꾀한다.

2023년 132억원 수준이던 파티온 연간 매출은 2024년 213억원, 2025년 246억원 등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63억원의 매출을 냈다.

한미약품도 최근 고급 뷰티 브랜드 ‘아데시’를 공개하며 대전에 가세했다. 특히 고객과의 접점을 직접 확보하기 위해 공식 온라인몰도 열었다. 공식몰을 통해 아데시가 추구하는 피부 과학의 가치를 전하는 동시에 향후 미백, 주름, 탄력 등 피부 고민별 맞춤형 제품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제약 업계 한 관계자는 “메가 히트급으로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본다”며 “브랜드가 독자 전환함으로써 각 기업의 사업 구조 내에서 이너뷰티나 건강기능식품 등과 유기적인 시너지를 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원씽’ 품은 애경산업... 화장품 비중 키운다

종료보고서 공시 등 합병절차 마무리
2028년 화장품 매출 비중 50% 목표

애경산업이 화장품 사업에 중점을 둔 성장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애경산업은 자회사 ‘원씽’을 흡수합병하고 지난 15일 합병등 종료보고서를 공시하는 등 모든 합병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병은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돼 별도의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완료됐다. 이와 관련 채권자의 제출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뤄졌고 6월 12일을 합병기일로 해 흡수 합병 절차를 종결했다.



스킨케어 브랜드 ‘원씽’ /애경산업

원씽은 애경산업이 2022년 인수한 스킨케어 브랜드다. 이번 원씽 흡수합병 이후

애경산업은 원씽을 포함한 스킨케어 브랜드 전반에 대한 포트폴리오와 중장기 성장 로드맵을 점검한다.

특히 브랜드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씽의 경우에도 향후 브랜드 정체성을 재정립한다.

애경산업 측은 “원씽은 단순 성분 중심 브랜드에서 핵심 성분에 집중한 스킨케어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브랜드 대표 성분인 병풀을 중심으로 제품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올러 애경산업은 최근 화장품 사업 조직을 세분화해 스킨케어 사업부를 신설하고 오는 2028년 화장품 매출 비중 50% 확보 등을 목표로 세웠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근육 증진 비만치료제 연구 발표

미국당뇨병학회서 선별

한미약품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당뇨병학회(ADA 2026)에서 두 번째 근육 증가형 비만 신약인 ‘LA-MSTN(HM500197)’을 처음 공개하며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학회에 참석한 전세계 비만대사 분야 연구자와 유수의 기업 관계자들은 신개념 비만치료제 HM17321과 HM500197의 개발 전략과 차별화 포인트, 전임상 연구 결과 등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발표 이후에는 향후 개발 로드맵과 사업화 전략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별도 미팅을 요청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 ‘뱀타이드’ 기반 HM500197은 마이오스타틴(myostatin)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도록 설계된 골격근 중심의 지방을 증가시키는 ‘차세대 근육 증진 치료제’다. 항체 기반 약물과는 달리 동일한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이선명 파트장(선임연구원)이 7일(현지시간) 미국당뇨병학회(ADA 2026)에서 세계 첫 근육 증가 비만치료제 HM17321의 주요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모달리티의 인크레틴 계열 치료제와 병용 또는 복합제 형태로 개발이 용이하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HM500197이 시험관(in vitro) 연구에서 항체 기반 근육 보존 약물인 비마그루탐(bimagrumab)과 유사한 수준의 마이오스타틴 억제 활성을 나타내면서도 비표적 사이토카인에 대한 억제 활성은 관찰되지 않아 우수한 마이오스타틴 선택성을 나타낸 결과를 발표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제약, 베그젤마·고텍스 가치 조명

간질환 국제학술대회 참가

셀트리온제약은 11~1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간질환 국제학술대회 ‘더 리버 위크(The Liver Week 2026)’에 참가해 진행성 간암 및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베그젤마’와 간장질환 용제 ‘고텍스’를 주제로 학술 강연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리버위크에서 베그젤마와 고텍스를 주제로 각각 런칭 심포지엄과 조찬 포럼을 운영하며 의료진에게 제품의 임상적 가치 및 치료 현장 활용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베그젤마 세션은 임상 결과와 의료 현장 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간질환 치료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바이오시밀러의 가치를 소개했다.

베그젤마는 베바시주담 성분의 바이오시밀러로, 전이성 직결장암을 비롯해 상

피성 난소암, 원발성 복막암, 자궁경부암 등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개정을 통해 아테졸리주담과 베바시주담 병용요법의 급여 기준이 반영되면서, 간세포성암 환자 치료에서도 주요 치료 옵션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베그젤마 런칭 심포지엄에는 ‘베그젤마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경북의대 탁원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울산의대 정성원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바이오시밀러의 개요와 정의, 장점 등을 알리고, 베그젤마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간암에서의 실제 사용 사례 등을 의료진에게 소개했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학회를 통해 제품별 임상적 가치를 알리고, 치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JW중외제약 ‘리바로젯’ 2제 복합제 매출 1위

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젯 2/10mg’이 지난 4월 2제 복합제(스타틴-에제티미브) 전체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시장조사전문기관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리바로젯 2/10mg은 지난 4월 기준 이상지질혈증 2제 복합제 전체 시장에서 매출 88억원, 시장점유율 6.59%를 기록하며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매출 84억원, 시장점유율 6.32% 대비 증가한 수치다.

리바로젯은 이상지질혈증 치료 성분인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국내 첫 2제 복합 개량신약이다. 피타바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며 에제티미브는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하는 기전으로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수치 감소에 도움을 준다. /이세경 기자

SK바이오팜, BIO USA서 AI 활용전략 공개

제약기업들과 협력 기회 모색

SK바이오팜은 22~25일 미국 샌디에이고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2026 BIO USA)’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은 이번 행사에서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 및 투자자들과의 파트너링 미팅을 통해 신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부스를 통해 연구 개발과 회사 운영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활용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단독 부스를 운영하는 SK바이오팜은 행사장 내 주

요 전시 구역인 ‘디지털헬스와 AI 존’에 부스를 마련했다. BIO USA는 지난해 디지털 헬스와 AI 기술을 주요 산업 의제로 다루기 위해 해당 구역을 신설하고 행사장 주요 위치에 관련 기업들의 부스를 집중 배치했으며, 올해도 이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의 AI 활용 방향과 확장 가능성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SK바이오팜은 이번 BIO USA에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및 투자자들과의 1:1 파트너링 미팅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개발, 신규 모달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타기 직전까지 끌어올린 반전의 맛

셰프의 킥
브라운 버터 오일



캐러멜라이즈드
에니언

벤트치즈번스



스모크
비프패티

By chef 네비딱한 천재

벤트비프버거

단품 8,800원 | 세트 10,700원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공단-WBG, 국제 환경문제 대응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세계은행그룹(WBG)과 협약을 맺고, 국제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순환경제, 대기, 수질, 토양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늘려 갈 계획이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오른쪽)와 발레리 히키 세계은행 환경국장이 '글로벌 환경협력 확대'에 관한 협력의향서에 서명한 뒤 대화하고 있다. /환경공단



웅진씽크빅,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펼쳐

윤승현 웅진씽크빅 대표(가운데)가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윤 대표는 고광범 볼트테크코리아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요즘 세대 아이들이 불법 사이버도박의 피해를 보기 전에 선제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동참을 결정했다. /웅진씽크빅



대동·대동모빌리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대동과 대동모빌리티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콘셉트 디자인 부문에서 각각 본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작은 대동의 농업용 멀티 플랫폼 로봇 'RMRP-100' (사진)과 대동모빌리티의 'DDM 모듈러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대동



하나은행-한국공인노무사회, 퇴직연금 효율화

하나은행은 지난 15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회장(오른쪽)이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카카오뱅크-몽골중앙은행, 디지털 금융 협력 논의

카카오뱅크는 지난 15일 몽골 중앙은행 총재 및 몽골 최대 기업 MCS그룹 관계자들과 만나 몽골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락축트 산자(Narantsogt Sanjaa) 몽골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을 방문해 카카오뱅크와 미팅을 가졌으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오른쪽)와 MCS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뱅크

롯데웰푸드, '돼지바 빵집' 방문객 1만2000명 돌파

(오픈 열흘 만에)

21일까지 서울 샤로수길서 팝업 방문객 73% 커스텀 체험 참여 신제품 '돼지바빵' 540만개 판매

롯데웰푸드의 '돼지바' 팝업스토어가 오픈 열흘 만에 누적 방문객 1만 2000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체험형 콘텐츠와 SNS 인증 문화를 결합한 마케팅이 젊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신제품 '돼지바빵' 판매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서울 관악구 샤로수길 인근에서 운영 중인 '돼지바빵집 since 1983'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모으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주말에는 이틀간 약 3000명이 다녀갔



롯데웰푸드 '돼지바 빵집 since 1983' 팝업스토어에 입장하기 위해 대기줄이 형성된 모습. /롯데웰푸드

며 팝업은 오는 21일까지 운영된다. 행사장에서는 '커스텀 돼지바빵 만들기'와 '밤티 돼지바빵 꾸미기 콘서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

다. 방문객의 약 73%가 커스텀 체험에 참여했고, 온·오프라인 콘서트에도 약 3000명이 참여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제품 '돼지바빵'도 출시 두 달 만에 약 540만개가 판매됐다. 롯데웰푸드는 1983년 출시된 장수 브랜드 '돼지바'의 친숙함과 다양한 세대가 찾는 샤로수길 상권을 결합한 전략이 흥행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꾸미고 SNS에 공유하는 MZ세대의 놀이 문화와 맞물리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마케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두산연강재단, 과학·수학교사 학술시찰

창원 산업현장부터 日 방문

두산연강재단이 과학·수학교사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현장 시찰을 진행한다.

두산연강재단은 초·중·고 과학교사와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과학 관련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을 탐방하는 '제20회 과학교사·수학교사 학술시찰'을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시찰에는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25명과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 7명 등 총 32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7박 8일 동안 경남 창원

의 산업 현장을 시작으로 일본 오사카, 나고야, 도쿄의 과학관과 기업체, 고등학교 등을 방문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산업 현장과 해외 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산연강재단은 2007년부터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 교사를 대상으로 과학교사 학술시찰을 운영해 왔다. 2025년부터는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과학교사 학술시찰에는 지금까지 총 698명의 교사가 참가했다. /원관희 기자 wkh@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3회 은행나무포럼'에서 나성화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김진홍 금융위원회 국장, 9개 특별출연 은행 임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보

무보,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 민관협력

'제3회 은행나무포럼' 열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주요 시중은행 및 정부 부처와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무보는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3회 은행나무포럼을 개최하고 9개 무역보험 기금 출연 은행과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와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나무포럼(은행과 함께 나누는 무역보험)'은 정부와 은행 간의 공동협의체로,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밀도 높은 협의를 이어왔다. 생산적 금융 활

성을 위한 실질적인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은행과 대기업의 출연금에 무보 보증의 레버리지 구조를 결합한 '상생 무역금융(SMILE, Supply-chain Miracle by Leverage)'의 성과와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공유됐다. 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이다.

향후에는 지원의 범위를 지역 경제로까지 넓힐 계획이다. 무보는 지자체 출연을 기반으로 한 '지역 수출기업 대상 우대금융 사업'을 신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본격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오뚜기, '함태호홀'에 경영철학·역사 담아

안양공장 내 조성... 개관식 열여

오뚜기가 창업자의 경영 철학과 반세기 넘는 기업 역사를 한 공간에 담은 헤리티지 시설을 선보였다. 창업 당시 생산기지를 리모델링해 기업의 정체성과 식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며 브랜드 유산(헤리티지) 강화에 나섰다.

오뚜기는 전남 경기도 안양시 오뚜기 안양공장 내에 조성한 '함태호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함영준 회장과 황성만 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함태호홀은 오뚜기 창업자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생애와 경영철학을 기리고, 오뚜기의 역사와 브랜드 자산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복합 헤리티지 공간이다. 1972년 준공돼 2009년까지 분말카레와 스프를 생산했던 안양1공장의 기존 골조를 활용해 조성했으며, 과거 공장의 구조와 흔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더했다.

연면적 8700㎡ 규모의 함태호홀은 지하 2층~지상 5층으로 구성됐다. 2023년 9월부터 구조검토와 철거, 증축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완공했다.

외관은 옛 공장의 삼각 지붕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오뚜기의 상징색인 '오뚜기 옐로우'를 적용한 매쉬 패널로 기업의 역사와 정체성을 표현했다. /신원선 기자



오뚜기가 안양공장 내에 함태호홀을 열었다. /오뚜기

내부는 창업자의 생애와 경영철학, 오뚜기의 성장 과정, 제품 변천사와 식문화 콘텐츠를 한 흐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1층에는 오뚜기 제품을 판매하는 '오피트'와 오뚜기 제품을 활용한 메뉴를 맛볼 수 있는 '롤리폴리 함태호홀점'이 들어섰고, 2층에는 라운지와 컨퍼런스룸, 식문화원이 마련됐다.

특히 2층 라운지에는 1975년 안양1공장 증축 당시 세워진 기둥 11개를 원형 보존해 과거 생산시설의 흔적과 기업 성장의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식문화원에는 국내외 식품 관련 전문서적 약 1만 8500권이 비치됐다. 오뚜기는 이를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한 지식 공유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5층에 조성된 '함태호 아카이브'에서는 창업자의 삶과 경영철학을 중심으로 오뚜기의 제품과 브랜드, 식문화 콘텐츠를 전시·체험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오뚜기는 이를 통해 창업자가 강조했던 품질과 신뢰, 식생활 향상의 가치가 현재의 브랜드와 소비자 식탁으로 이어져 온 과정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중진공-전기안전공, 감사 전문성 제고

감사전문성 강화, 청렴문화 확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감사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중진공은 전기안전공사와 전북 안주군 전기안전공사 본부에서 감사 전문성 강화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감사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국 단위 조직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감사노하우와 제도·시스템 개선 경험을 나누면서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중진공과 전기안전공사는 전문 분야에서 교차·합동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인력을 상호 교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반 감사 기법을 공유하고 자문 체계도 마련한다.

또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및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진행한다.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감사성과관리 등도 협업해 감사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충북도교육청 ◇3급 승진 △교육도서관 황경식 ◇4급 승진 노사정책과장 권사혁 △단체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김정기 △교육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부장 정선옥 △국제교육원 총무부장 박대규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유재명 △교육시설과장 김광오 ◇4급 전보 △재정복지과장 하재숙 △자연과학교육원 총무부장 안치동 △

해양교육원장 최희희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용성

◆일요주간 △주필 이재훈

부음 ▲강희자씨 별세, 김종율(롯데메이칼 대산공장 총무담당 수석)씨 모친상 = 16일 오전, 충남 서산시 수석동 서산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8일 오전. 041-669-1414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 # UV-A 98% / UV-B 99% 차단
- #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x 60mm 대형 패치
- #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 #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삼성노조 사태와 화이트 이그젼션



한용수의
동작구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사태는 극적인 타격으로 일단락됐으나, 이번 사태가 남긴 사회적 파장과 과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수억대 성과급이 화두였으나 본질은 우리 노동정책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있다는 점이다.

노조가 문제 삼은 건 초과이익에 대한 보상이었으나, 갑갑이 평가와 보상 기준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이 더 컸다. 사측 역시 파업 장기화를 감수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막판 합의에 나선 배경으로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 우려를 꼽는다. 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이 사활을 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길어지면 우수 인재 확보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

과거 제조업은 '시간의 산업'이었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근속연수와 집단 생산성이 핵심 가치였다. 그러나 지금의 첨단 반도체 산업은 다르다. HBM과 차세대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경쟁은 소수 천재급 연구 인력의 역량이 좌우한다. 특정 엔지니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수조 원 규모 사

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구조다. 글로벌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근무시간보다 결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성과 중심으로 움직인다. 미국 등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화이트 이그젼션(고소득 전문직 근무시간 적용 제외)'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한국의 노동 제도는 여전히 과거 제조업 시대의 '시간 중심' 틀에 갇혀 있다.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극복해 온 경험에 있는 한국 사회는 여전히 노동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나 글로벌 첨단 산업의 냉혹한 현실도 외면할 수는 없다. 미국, 대만, 중국을 상대로 한 속도 경쟁에서 기술 개발 시기를 놓치면 도태뿐이다. 이제 인재 확보와 유연한 연구 환경은 그 자체로 국가 경쟁력이 됐다.

실제 현장의 인재 유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파격적인 고액 연봉으로, 미국과 대만 기업들은 높은 연구 자율성과 성과 중심의 보상을 내세워 한국의 핵심 인력들을 유혹한다.

위기의식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산업계는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근무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의 부활을 우려했다. 여당과 야당 역시 첨단 인력의 특수성에 공감하면서도 노동계

의 우려를 고려해 사회적 합의와 안전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결국 여야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고, 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나설 때다. 미국식 제도를 무조건 이식하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한국형 화이트 이그젼션'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첨단산업의 일부 고소득 전문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근로 자율성을 주되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다.

삼성 노조 사태가 보여준 교훈도 명확하다. 자율성과 성과 중심 체계는 투명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작동한다. 우선 성과 평가와 보상 기준의 전면적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초과 성과에 대한 확실하고 파격적인 보상 체계, 무제한 노동을 막기 위한 휴식권 및 건강권 보호 장치 제도화를 담아야 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찬반논쟁의 단순한 중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반도체특별법에서 매듭짓지 못한 과제를 다시 식탁 위로 올려야 한다. 국가 첨단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세종=h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7일 (음 5월 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60년생 서남쪽이 길방입니다. 72년생 유망한 일을 모색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84년생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바라는 것이 유익합니다.



49년생 동업은 길하다고 보겠습니다. 61년생 남의 언쟁에 끼어드는 것을 삼가하세요. 73년생 의외의 돈이 들어와 살림이 풀려나겠습니다. 85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년생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원만하게 풀려 나갑니다. 62년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74년생 더욱 큰일에 몰두하세요. 86년생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51년생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63년생 하늘이 복을 내립니다. 75년생 주변 사람들의 칭송이 대단합니다. 87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52년생 남쪽은 좋지 않으니 여행지 선택을 잘하세요. 64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76년생 어려울 때일수록 불의를 멀리하도록 하세요. 88년생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53년생 뜻밖의 반가운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65년생 이곳저곳에서 작은 이익이 생깁니다. 77년생 평소보다 건강을 조심하세요. 89년생 마음이 한동안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54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은 친구를 만날 것입니다. 66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겠습니다. 78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겠습니다. 90년생 동남방에 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5년생 매사에 노력하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67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79년생 어느 곳으로 가든지 좋습니다. 91년생 꾸준한 노력으로 이겨내어야 합니다.



56년생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0년생 기다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92년생 능력을 점검하고 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57년생 대체로 원만합니다. 69년생 여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81년생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93년생 안에서 찾으려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58년생 간절히 빌어도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0년생 정신적으로 충분한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82년생 이동 중 교통사고를 조심하세요. 94년생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세요.



59년생 꾸준한 체력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71년생 개업이나 전업은 아직 좋지 않습니다. 83년생 부모님에게 따뜻한 안부전화를 하세요. 95년생 좋은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복지, 기업만큼 소비자 의식도 바뀌어야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지속 가능성과 동물복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태 위 현실은 여전히 비좁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달걀의 상당수는 A4용지 한 장 크기(0.05㎡)의 배터리 케이지(공장형 사육장)에서 나온다. 평생 날개 한번 펴지 못하는 철창 속 고통이 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되는 곳이 국내 사육 농가의 현실이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사육을 끊기 위해 먼저 움직인 건 풀무원이다. 지난 2018년, 브랜드 달걀 시장의 80%를 점유하던 이 기업은 '2028년까지 전 제품 케이지 프리(Cage Free)'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리더의 움직임은 곧 시장의 변화로 이어졌다. 2022년 4.4%에 불과했던 국내 동물복지란 점유율이 2024

년 13.8%로 2년 만에 3배 이상 급성장한 것이다. '어떻게 키웠는가'를 묻는 소비자의 눈높이가 시장의 표준을 바꾸기 시작한 셈이다.

글로벌 동물보호 네트워크(OWA)와 시민 사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다음 주자인 CJ제일제당으로 향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 식품 시장을 리드하는 거물이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이 연간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달걀은 약 6억 개로 추산된다. 이 거대한 물량이 동물복지란으로 전환될 때 당장 200만 마리의 암탉이 좁은 철창을 벗어나는 직접적인 구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당위성만으로 시장을 바꿀 수는 없다. 기업의 결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지불 의사'다. 동물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배터리 케이지를 벗어나 평사 사육으로 전환하는 순간, 농가는 사육 마릿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게다가 평사에

서 낳은 계란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줍는 고된 노동력이 추가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계란값과 닭고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싼값의 혜택을 누려온 소비자가 동물복지 향상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기꺼이 감내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선언도, 농가의 변화도 지속될 수 없다.

"동물복지가 좋으니 기업이 무조건 전량 바꾸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그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할 성숙한 소비 의식을 갖췄는지 먼저 자문해 보아야 하는 이유다.

생명 존중의 가치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소비자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었을 때, 생산자 단체와 농가도 비로소 주도적인 변화에 나설 수 있다. 200만 암탉에게 날개를 펼칠 자유를 주는 일은 기업의 결단과 그 가치에 기꺼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된 소비자들의 책임 있는 연대가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tree6834@



김상회의四季 차도살인, 빌리는 지혜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넘기 힘든 일을 마주할 때 그렇다. 생각대로 밀어붙이려니 깨질 게 뻔하고 피해서 돌아가려니 아예 길을 찾을 수 없다. 중국 병법 36계 중 하나인 차도살인(借刀殺人)은 이런 지경에 처했을 때 해법을 건넨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외부의 힘을 활용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고 상황과 환경, 주변의 힘을 이용해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 직장 생활에서 차도살인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조직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다. 회사 업무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처리하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더구나 익숙하지도 않은 분야의 업무를 떠맡아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날이 잘 드는 칼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는 격이다. 사주팔자 중에서 자기 기운이 약한 신약한 사주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약한 자기 힘만으로 담비다가는 순식간에 기운을 소진할 수 있다. 이런 때 자기를 돕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힘을 상생으로 끌어다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운세의 흐름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차도살인 전략이 생존을 좌우한다. 운세가 하락할 때 직접 칼을 휘두르다가는 자칫하면 자기 발등을 찍기 쉽다. 운세도 힘이 없는데 에너지까지 잃으면 생존의 위기로 물리게 된다. 그런 시기에는 운세가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면 방법은 냉혹한 전략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가 될 것이다. 방법은 사람과 삶을 들여다보는 지혜로 움이기도 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빌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4			2		8		7
	3							9 6
9			6		3			
		9 3		7 4				
4								1
		3 7		2 6				
			1		6			5
7 1								6
5		2		8				4 3

7			3 4			1 8 5		
3				9		2		
8 4			3					
								8
9 3 7						4 6 1		
2								
				1				2 6
			9	7				4
1 8 6			5 4					9

6	4	8	7	9	8	1
7	1	8	9	6	2	9
9	2	5	8	1	4	6
6	9	6	1	9	7	8
1	9	7	8	5	2	6
8	5	2	6	7	1	9
2	6	9	2	8	1	5
2	7	9	6	8	1	9
9	8	1	6	7	4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3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3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교육부, 마이스터고 6곳 신규 지정 첨단산업 중심 직업계고 재편 속도

반도체분야 2개교·AI분야 4개교
학교당 50억 지원... 2028년 운영
삼성, SK 등 국내 주요기업 참여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인력 수요가 커지면서 직업계고등학교 재편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특성화고 6곳을 반도체·AI 융합 분야 마이스터고로 새로 지정해 2028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K T, 네이버클라우드, 한전KDN 등 반도체·AI·에너지·로봇 분야 기업과 기관이 주요 협약기업으로 참여해 교육과정과 현장 실습 연계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성화고등학교 6개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학교들은 혁신 준비 과정을 거쳐 2028년 3월 신입생을 받는다.

이번 신규 지정은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됐다. 반도체 분야 2개교, AI 융합 분야 4개교다. 반도체 분야에는 부산전자공업고와 (가칭)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가 지정됐다. 부산전자공업고는 반도체공정 장비과와 반도체소재제조과를 운영하며,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는 반도체제조공정과와 반도체장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두 학교 모두 정원은 96명이다.

신규 지정 학교들은 반도체 공정·장비, 이차전지 제조, 에너지 제어, 데이터산업 인프라, 로봇 개발·제어 분야 실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부산전자공업고와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는 반도체 장비·공정 시험원, 품질관리 시험원, 제조장치 조작원, 장비 정비·설치 인력 등을 키운다. 이리공업고는 이차전지 전극 제조와 조립, 총방전, 품질검사 인력을 양성하고, 목포공업고는 발전·배전 장치 조작, 에너지 제어, 공조·전기계측 분야 인력을 기른다. 해남공업고는 데이터베이스 운영, 데이터 분석, 산업 인프라 관련 기술 인력을, 문경공업고는 로봇 설치·정비, 로봇 개발·제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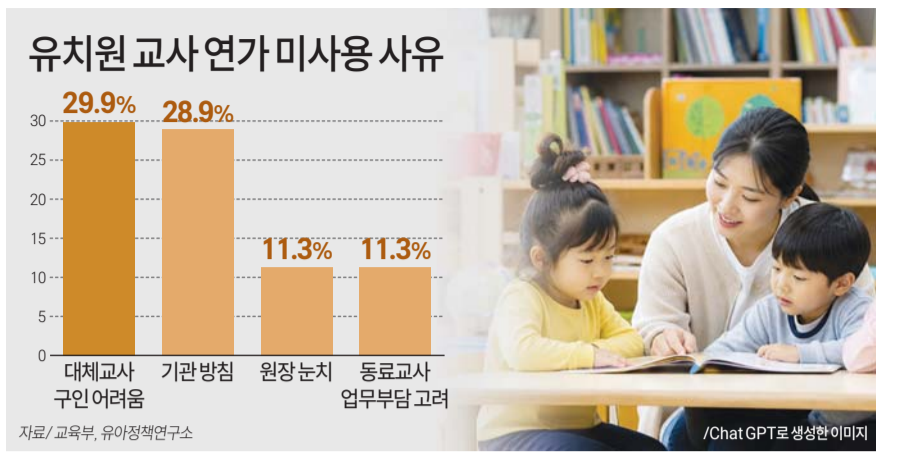
협약기업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S, 한전KDN, 한국중부발전, K T, 네이버클라우드, 대동로보틱스 등 반도체·AI·에너지·로봇 분야 기업과 기관이 포함됐다.

다만 신규 지정 6개교 가운데 3개교는 조건부 동의 대상이다. 교육부 지정위원회는 부산전자공업고,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 이리공업고 등 3개교에 대해서는 동의 결정을 내렸고, 목포공업고와 해남공업고, 문경공업고 등 3개교는 조건부 동의로 심의·의결했다. 조건부 동의 학교는 오는 7월 28일까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9월쯤 최종 지정 동의 여부가 결정된다. 신규 지정 학교에는 학교당 2년간 총 50억원이 지원된다.

기존 마이스터고의 지정 분야 변경도 이뤄졌다. 올해는 3개 마이스터고가 지정 분야 변경을 신청했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두 승인됐다. 인천전자마이스터고는 기존 전자·통신 분야에 AI를 추가하고, 군산기계공업고는 조선·기계에서 AI·로봇 분야로 바뀐다.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는 식품품질관리에서 바이오 분야로 지정 분야를 변경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를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해 현장 실무형 인재를 기르는 직업교육 모델”이라며 “AI 전환과 첨단산업 확산에 맞춰 학교별 지정 분야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실습 환경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정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확대

교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체계 정비

독감 증상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던 사립유치원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내면 기간이나 종류와 관계 없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우더라도 수업 공백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아픈 교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2027년까지 개선해 병가의 기간이나 종류와 관계 없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병가 외에도 공가, 특별휴가, 자격·직무연수, 출장 등 교사 부재 상황에 대한 지원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과 인력 직접 지원을 병행해 유치원 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긴급한 교사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순회교사 배치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갑자기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을 방문해 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순회교사 외에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는 수업 지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하도록 한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처우개선 지원금을 현재 88만원에서 2027년 9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기근속수당도 현재 6만원에서 2027년 8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현진 기자

인사동 한옥 규제완화... 신축·개보수 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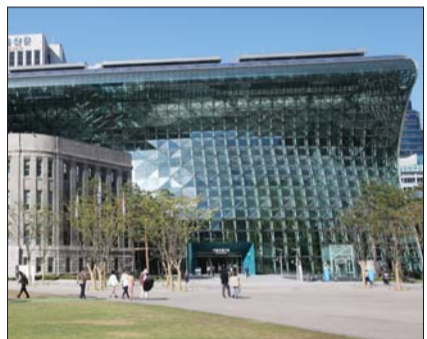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고시
한옥 건축면적 기준 70% → 50%

서울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고쳐 짓는 기준이 완화된다. 한옥 인정 기준은 건축면적의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아지고,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 11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 전면 개편된 것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한옥 건축 규제 완화와 개발 기준 단순화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서울시청 전경.

했지만,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 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지붕 재료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통 한식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허용된다. 구조 기준 또한,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던 기존 기준에서 벗어나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최대 15개 이하 범위에서 다른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는 면제된다. 도심 지역에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한옥 건축을 추진하기 힘들었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600% 이하로 유지하되, 개방형 녹지 조성,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용적률을 최대 6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상한 용적률은 기존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은 기존 60%에서 완화된다.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고 1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다.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은 최대 90%까지 적용된다.

/이현진 기자

남양주-창저우, 우호협력 강화 방안 논의

남양주시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 대표단이 방문해 지역 내 문화·스포츠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장평취 창저우시 부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5명이 함께했으며, 14일 정약용편그라운드를 시작으로 정약용유적지와 이석영광장 내 복합문화공간 ‘리멤버1910’을 차례로 방문해 남양주시의 역사·문화 자원을 체

험했다. 이어 다산동 정약용도서관을 찾아 도서 기증식과 시설 라운딩을 진행했으며, 남양주시와 도서관 교류 확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광덕 시장은 “양 도시가 문화·교육 분야와 축구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경기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정책 브랜드 ‘세금톡톡’ 선배

경기도가 체납세금 납부 지원과 실태 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시군별 채용이 본격화된다.

도는 올해 총 576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분납 안내,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생계형 체납

자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해 긴급 생계비·주거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경기도는 체납관리단 정책 브랜드(B.I.)인 ‘세금톡톡’도 새롭게 선보였다. ‘찾아가서 톡! 체납고민 톡!’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활동을 친근하게 알리고 도민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0 | 해질 / 19:56

6월 17일 (수)
음력 : 5월 3일

수도권 날씨
22 ~ 3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C):
연천 18/30, 동두천 20/31, 가평 18/31, 파주 19/31, 서울 22/32, 양평 19/31, 인천 21/30, 수원 22/31, 용인 22/31, 평택 20/3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이란 매체, 종전 MOU 초안 공개... 미사일 문제 배제
- ▲이탈리아서 ‘중국계 비밀은행’ 적발... 마약조직·마피아 고객



- ▲美 전략폭격기 B-52 이륙 직후 추락... “탑승 8명 전원 사망”
 - ▲미국의 쿠바봉쇄로 심각한 인명 피해·의료 시스템도 붕괴
- 사진 뉴스스

- ▲英,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추진... 美 빅테크·트럼프 반발
- ▲스페이스X? 중국도 올해 10개 상업 항공 우주 기업 IPO 목표



유통업계
토이스토리 5
캐릭터 만나보세요
L1



Life

예약사
뷰티실적
'극과 극'
L2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

K푸드, 세계인의 먹거리

글로벌 시장의 확장 and 현지화 전략

2026년 6월 17일(수) 오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주최 : metro • metro경제

유행 아닌 표준으로... K-푸드, 현지화·기술로 영토 넓힌다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 전략 모색
정부·업계·테크 전문가 한자리에
김치·두부 신화 '현지화 공식'부터
AI·빅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제시

글로벌 무대에서 전성기를 맞이한 K-푸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영토 확장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K푸드, 세계인의 먹거리: 글로벌 시장의 확장과 현지화 전략'을 주제로 정부, 업계, 테크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올해 포럼은 K-푸드가 반짝 유행을 넘어 글로벌 메인스트림으로 안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과 기업들의 생생한 성공 사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강연으로 구성됐다.

첫 세션은 정부 관계자들이 포문을 연다. 유재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식산업과장이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주제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영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사무관이 '2026 수산식품 수출전략'을 통해 K-시푸드의 글로벌 영토 확장 청사진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식품 대기업들의 혁신 DNA와 현지화 성공 공식이 공개된다.

전 세계에 김치 신드롬을 일으킨 대상의 정찬기 글로벌김치마케팅팀장이 '종가, 식품업계의 하이닉스를 꿈꾸다'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연단에 선다. 대상의 대표 브랜드 '종가(JONGGA)'는 전 세계

김치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김치 세계화'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어 미국 두부 시장을 제패한 풀무원의 윤명량 글로벌마케팅 총괄본부장이 '글로벌 K-Food 트렌드와 지속가능 식품의 미래'를 주제로 식물성 단백질 시장 선점 비결을 공유한다. 풀무원은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물기를 뺀 단단한 질감의 '하이프로테인 두부(High Protein Tofu)'로 미국 두부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 세션은 미래 식품 산업의 핵심 키워드인 '데이터'와 '테크'를 집중 조명한다.

안병익 식신 대표가 '식신 AI 데이터로 본 외국인 찾는 K푸드'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외식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어 연운열 (사)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이 'AI와 푸드테크가 만드는 K-푸드 2.0'을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14:00~14:10	개막식	<축사> 송미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10~14:40	강연	유재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식산업과장 :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14:40~15:10		박수영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사무관 : 2026 수산식품 수출전략
15:10~15:40		정찬기 대상 글로벌김치마케팅팀장 : 종가, 식품업계의 하이닉스를 꿈꾸다
15:40~16:10		윤명량 풀무원 글로벌마케팅 총괄본부장 : 글로벌 K-Food 트렌드와 지속가능 식품의 미래
16:10~16:40		안병익 식신 대표 : 식신 AI 데이터로 본 외국인이 찾는 K푸드
16:40~17:00		연운열 (사)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 AI와 푸드테크가 만드는 K-푸드 2.0

주제로 디지털 전환을 맞이한 식품 산업의 미래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K-푸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한 '현지화'와 '기술 혁신'

의 해법을 얻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유재형	박수영	정찬기	윤명량	안병익	연운열
농식품부 식품의식산업과장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 사무관	대상 글로벌김치마케팅팀장	풀무원 글로벌마케팅 총괄본부장	식신 대표	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유재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식산업과장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 학과 작물생명과학 학사와 미국 텍사스 A&M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를 마친 농식품 정책 전문가다. 제5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농업금융, 수출진흥, 유통 및 방역 등 핵심 보직을 거치며 관련 역량을 다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주제로 한식이 단순 유행이 아니라 세계인 일상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알린다. 우리 음식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비전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유입 및 소비 확대를 위해 지역 특색 음식을 테마로 엮는 'K-미식벨트 조성' 전략 등 한식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박수영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사무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수산정책과 등 주요 보직에서 행정 실무를 경험했다. 특히 수산 분야 전문성을 갖춰 현재는 대한민국 수산물 및 수산 가공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진흥 정책을 현장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6 수산 식품 수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2026년 수산식품 수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공개한다. 또 수산물 특성을 반영한 공급 안정화 대책과 한류 열풍을 활용한 수출 시장 다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K씨푸드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찬기 대상 글로벌김치마케팅팀장은 대한민국 1등 김치 브랜드 '종가'가 해외 시장으로 도전하는 길을 개척하고 있는 마케팅 전문가다. 우리나라 고유 음식인 김치를 세계인의 밥상에 올려 글로벌 식문화 중심에 서겠다는 포부다. 정 팀장은 김치를 '식품 업계의 반도체'로 정의한다. 한국인의 김치라는 전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다양한 미식 시장을 주도할 식재료 김치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간문화재의 비법을 전수받았지만, 인건문화재의 비법을 전수받았지만, 화학적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세계적 수준으로 표준화한 레시피로 시장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다.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는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팝업과 페스티벌, 각종 요리대회를 통해 김치를 선보이며 시장을 사로잡고 있다.	윤명량 풀무원 글로벌마케팅 총괄본부장은 고려대 식품공학과와 동국대 경영대학원을 거쳐 식품 과학 지식과 비즈니스 역량을 바탕으로 식생활 브랜드를 성장시킨 전문가다. 지난 2001년부터 풀무원식품에서 근무해 왔고 현재 풀무원의 혁신 전략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특히 윤 본부장은 풀무원 '지구식단' 등 지속가능한 성공 기반을 시장에 안착시킨 주역이다. 건강과 환경에 중점을 둔 '품질 중심' 식품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다. 또 한국식품마케팅학회 부회장 등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K푸드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통찰력을 통해 K푸드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해법을 내놓는다.	안병익 식신 대표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산업을 개척한 1세대 벤처인이자 위치 기반 기술(LBS) 전문가다. 2000년 내비게이션 기업 '포인트아이'를 창업해 코스닥에 상장시켰고 2010년에는 식당 추천 플랫폼 '식신' 설립으로 푸드테크 영역을 확장했다. 2015년 출시한 기업용 모바일 식대관리 서비스 'e식관'은 현재 830여 개 기업 고객과 함께 월 거래액 120억원을 기록하는 등 외식 시장 대세가 됐다. 안 대표는 식문화 핵심 요소인 맛집에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을 더한 미래형 K푸드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엔 방향 외국인의 음식 관련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며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연운열 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은 산·학·연·관을 모두 거쳐 각종 식품 규제와 기술을 꿰뚫는 전문가다. 오투기, 오리온, 놀부 등 국내 대표 기업부터 유니레버코리아, 미국 식이보충제 연구소 등에서 폭넓은 국내외 경험을 쌓았다. 경인식약청 해섭(HACCP) 위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등 연구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식품기술사, ISO인증심사원, 할랄마스터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충북대 식품공학 박사이기도 하다. 현재 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과 글로벌비건인증원 대표를 맡아 대한민국 식품의 미래를 이끌며 첨단 기술과 융합해 진화 중인 K푸드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

메트로 한줄뉴스



▲한국야구위원회, 시민구단 추가 창단 추진... 다음 달까지 공모
▲양궁 남자 대표팀, 월드컵 단체 금메달...이우석은 개인 은메달도 (사진 뉴시스)

▲'MLB 타율 2위' 이정후, 올스타 투표에선 약세... '마이너' 김혜성은 4위
▲백악산 한양도성 안내소 재운영...한 달 평균 3만3천명 다녀가

▲'마린스키 전민철, 유니버설발레단'백조의 호수' 출연
▲문체부, '거제 야호' 리센스 등 중소기업사 10곳에 최대 3억 지원